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2016~2020년 국제수입 전망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Ⅲ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총괄 | 박 응 주 경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정 문 중 조세분석심의관
심 혜 정 세수추계1과장

전망 심 혜 정	세수추계1과장	총괄
신 영 임	세수추계1과 경제분석관	법인세, 부가가치세
권 일	세수추계1과 경제분석관	관세, 교육세
장 윤 정	세수추계1과 경제분석관	소득세, 재산세
하 정 희	세수추계1과 경제분석관	소비세

쟁점분석 | 심 혜 정 세수추계1과장
신 영 임 세수추계1과 경제분석관

지원·편집 | 박 혜 림 세수추계1과 행정실무원
윤 나 현 세수추계1과 자료분석지원요원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시리즈는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및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실 세수추계1과 | 02) 788-4744 | ret@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2016.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
위원회」의 심의(2016.10.1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부진도 지속되면서 낮은 성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면 미약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은 2015년 이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국세수입 증가율은 8% 후반대로 경상성장률의 두 배를 상회하는 신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세·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우려되는 점은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미약한 가운데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가격 상승이 최근의 세수실적 호조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금리 인상 본격화 등으로 자산시장의 호조세가 악화될 경우 세수여건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2017년은 대외거래의 완만한 회복으로 금년과 비슷한 2% 후반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세입여건도 2016년에 이어 개선세를 이어가겠으나 증가추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세수입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내수부문의 개선추세 둔화가 국세수입 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금년 및 예산연도를 포함한 2016~2020년간 국세수입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행정부와 비교하였습니다. 또 최근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세수증가의 원인 등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2017년도 세입예산안의 심의과정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재정에 관심을 가진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준 기

요약 및 총평

2016년 국세수입은 237.0조원으로 예산(추경기준)을 4.3조원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7년 국세수입은 행정부 예산안(241.8조원)을 2.5조원 상회하는 244.2조원으로 전망

- 2016년 국세수입은 237.0조원으로 2015년대비 19.1조원(+8.8%) 증가하고, 예산(추경기준, 232.7조원)을 4.3조원 초과할 전망
 - 자산시장 호조세 지속 등으로 소득세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수가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16.9%의 높은 증가율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
 - － 법인세수 증가율(%): ('12)2.4 ('13)-4.5 ('14)-2.7 ('15)5.6 ('16)16.9
 - 국세수입 증가율은 8.8%로 2015년(6.0%)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고, 경상성장률(4.0%)의 두 배를 상회
- 2017년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244.2조원으로, 행정부 국세수입 예산안(241.8조원)에 비해서 2.5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
 - 자산시장 호조세의 약화가 예상되고 2016년의 높은 증가율에 대한 반락으로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8.8%→3.0%)될 것으로 예상되나,
 - 2017년 국세수입 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16년 국세수입을 NABO가 행정부보다 4.3조원 높게 보고 있음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2.5조원 상회
 - － 2017년 GDP성장률 전망치(실질/경상,%): (행정부)3.0/4.1 (NABO)2.7/3.9
 - － 2017년 국세수입 증가율 : (행정부)3.9% (NABO)3.0%
 -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견조한 증가흐름과 2016년 기업영업실적 호조로 소득세수(+2.8조원)와 법인세수(+0.3조원)가 행정부 전망치를 상회

- 2016 ~ 2020년간 국세수입 증가율은 중기적으로 자산시장 호조세 약화위험 등을 감안할 때 행정부안을 하회할 가능성
 - 최근 세수호조를 견인하고 있는 자산시장 효과가 약화될 경우 국세수입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 상존
 - － 자산시장의 호조세는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부실위험과 주택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인해 중기적으로 하방위험 요인 확대
 - 이러한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NABO는 2016 ~ 2020년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행정부안(4.5%)에 비해 낮은 3.9%로 전망
- 향후 재정운용은 최근의 세수실적 개선이 경기적 요인보다는 자산시장 호조로 추세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 2015년 이후 세수실적 개선은 수출·투자·민간소비 등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미약한 가운데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가격 상승이 견인
 - － 경기순환국면에 따른 부동산시장과 국세수입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산시장 호황을 동반한 경기확장기의 국세탄성치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으로, 성장속도에 비해 세수가 높은 탄성으로 증가
 - － 반면 자산시장 호황을 동반한 경기확장국면이 수축국면으로 전환될 때 국세탄성치는 여타 수축기에 비해 더 가파르게 하락하는 경향
 - 금리인상 본격화 등으로 자산시장 호조세가 약화될 경우 세수여건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 상존
 -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산될 위험과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 유지노력을 지속할 필요

2016~2017년 국세수입 전망(NABO)

(단위: 조원)

	2015	2016				2017			
	실적	예산 ¹⁾	NABO	전년 대비	예산 ¹⁾ 대비	예산안	NABO	전년 대비	예산안 대비
	A	B	C	C-A	C-B	D	E	E-C	E-D
국세	217.9	232.7	237.0	19.1	4.3	241.8	244.2	7.2	2.5
일반회계	210.8	225.8	230.3	19.4	4.4	234.6	237.2	6.9	2.6
내국세	182.0	196.4	200.4	18.4	4.0	203.8	206.7	6.3	2.9
1. 소득세	60.7	63.3	65.2	4.4	1.9	65.3	68.1	2.9	2.8
2. 법인세	45.0	51.4	52.6	7.6	1.3	54.0	54.2	1.6	0.3
3. 상속증여세	5.0	5.2	5.2	0.1	0.0	5.3	5.4	0.2	0.0
4. 부가가치세	54.2	59.8	58.8	4.7	-0.9	61.5	61.2	2.4	-0.3
5. 개별소비세	8.0	8.6	8.7	0.7	0.1	9.0	9.0	0.3	0.0
6. 증권거래세	4.7	3.8	4.5	-0.1	0.7	4.0	4.0	-0.6	-0.1
7. 인 지 세	1.0	0.8	0.9	-0.1	0.1	0.9	0.9	0.0	0.0
8. 과년도수입	3.4	3.5	4.5	1.0	1.0	3.8	3.9	-0.6	0.1
교통·에너지·환경세	14.1	14.8	15.3	1.2	0.4	15.4	15.5	0.3	0.2
관 세	8.5	8.3	8.3	-0.2	0.0	9.0	8.5	0.2	-0.5
교 육 세	4.9	5.0	5.0	0.1	0.0	5.1	5.1	0.1	0.0
종합부동산세	1.4	1.3	1.3	-0.1	0.1	1.4	1.4	0.0	0.0
특별회계	7.1	6.9	6.8	-0.3	-0.2	7.1	7.0	0.3	-0.1
주 세	3.2	3.3	3.2	0.0	-0.1	3.3	3.3	0.1	-0.1
농 특 세	3.8	3.6	3.6	-0.3	-0.1	3.8	3.7	0.2	-0.1

주: 1) 2016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차 례

요약 및 총평 / vii

I. 2017년 거시경제여건 및 세수전망의 전제 / 1

- 1. 2017년 거시경제여건 전망 1
- 2. 2017년 세수전망의 전제 1

II. 2017년 국세수입 전망 / 3

- 1. 2016년 국세수입 3
- 2. 2017년 국세수입 21
- 3. 2017년 국세 세입예산안과의 비교 30

III.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 33

- 1. 2016~2020년 중기 거시경제 여건 및 전망 33
- 2.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34
- 3. 2016~2020년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37

IV.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 38

- 1. 최근 국세수입 호조 원인 분석 38
- 2. 경기순환국면에 따른 부동산 시장과 국세탄력성 간의 관계 45
- 3. 최근 법인세 추이와 변동 원인 57

표 차례

[표 1] 2016~2020년 국내경제 전망	2
[표 2] 2016년 국세수입 전망	5
[표 3] 외감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11
[표 4] 비금융업 기업의 경영성과, 2015년	11
[표 5]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거시변수 실적 및 전망(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13
[표 6] 휘발유 및 경유 소비량	14
[표 7] 2016년 관세 세수 추이	15
[표 8] 2017년 국세수입 전망	22
[표 9] 2017년 소득세수 전망	23
[표 10]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증가 추세	24
[표 11] 금융업종 당기순이익 추이	27
[표 12]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거시변수 실적 및 전망(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28
[표 13]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 변화	29
[표 14] 2017년 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 비교	32
[표 15] 2016~2020년 경상GDP와 국세수입 전망(NABO)	34
[표 16]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NABO)	36
[표 17] 2016~2020년 NABO 전망과 행정부 전망 비교	37
[표 18] 2015~2016년 1~8월 국세수입(순계)	40
[표 19] 2015년 외감기업의 업종별 당기순이익 증감 현황(전년 대비)	42
[표 20] 근로소득세, 임금, 근로자수 추이	43
[표 21] 9~12월 주요 세목 세무일정	44
[표 22] 경기순환 국면과 부동산 시장 붐(boom)	50
[표 23] 국세수입 탄성치 비교(경기확장 국면)	50
[표 24] 국세수입 탄성치 비교(경기수축 국면)	52
[표 25] 법인세 예결산 및 오차 추이	58
[표 26] 법인세 부담 변화 원인 분석의 개요	59
[표 27] 법인의 영업잉여와 과세표준 사이의 관계	59
[표 28] 법인세 부담 변화 원인 분석	61
[표 29] 기업 경영 실적	62
[표 30] 11대 산업 2015년 상반기 실적	62
[표 31] 법인세 비과세 감면 정비 및 법인세	63
[표 32]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제 주요 변경 내용	63

그림 차례

[그림 1] 가격지수와 매매거래량 추이	7
[그림 2] 관세 및 통관수입액	15
[그림 3] 증권거래대금	18
[그림 4] 기준금리와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추이	25
[그림 5] 기업경영분석	26
[그림 6] 시나리오별 원유가격 전망	28
[그림 7] NABO 전망과 세입예산안 비교	30
[그림 8] 1~8월 국세수입 실적(누계)	38
[그림 9] 토지거래동향	41
[그림 10] 경상GDP증가율과 국세수입 증가율	46
[그림 11] 주택매매거래지수	46
[그림 12] 자산관련 세수 추이	47
[그림 13] 우리나라 기준순환일 및 경기순환국면	48
[그림 14] 부동산 시장지표의 장기추세	49
[그림 15] 부동산 시장지표들의 장기추세로부터의 편차(deviation)	49
[그림 16] 경기확장기의 국세탄성치 비교	51
[그림 17] 경기수축의 국세탄성치 비교	52
[그림 18] 일시적 재정수입 호조 이후의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변화(OECD 사례) ·	54
[그림 19] 부동산 사이클(cycle)과 재정지출 사이클 간의 관계(한국 사례) ····	55
[그림 20] 법인세 추이	57

박스 차례

[BOX 1] ISA(개인금융자산종합계좌) 도입과 시행경과	8
[BOX 2] FTA 추진 현황 및 실효관세율 추이	16
[BOX 3] 담배 반출량 추이 및 전망	19

I. 2017년 거시경제여건 및 세수전망의 전제

2017년 국내경제는 대외거래는 완만히 개선되겠으나, 내수부문에서 둔화가 예상되어 2% 후반의 성장에 머무를 전망

1. 2017년 거시경제여건 전망¹⁾

- 2017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겠으나, 민간 소비 약화 등 내수부진으로 2016년과 동일한 수준의 성장률 전망(2.7%)
 - 명목GDP성장률은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의 하락에 따라 2016년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2016년 4.0% → 2017년 3.9%)
 - 내수는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가 약화
 - － 민간소비는 구조적 요인 및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
 - － 건설투자는 주택투자 둔화, 토목투자의 감소로 큰 폭의 둔화 예상
 - 대외거래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교역량 증대로 2015~2016년 기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고용은 조선, 해운업 등의 구조조정 확산 가능성에 따라 제조업 부문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가 예상
 - 소비자물가는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2016년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

2. 2017년 세수전망의 전제

- 2017년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 등 대외거래 회복을 기반으로 성장할 전망인데, 국세수입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내수부문의 개선추세 둔화가 국세수입 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
 - 수출하는 재화 및 서비스 및 수입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은

1) NABO, 「2017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16.9.

세수 감소요인으로 작용

-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보여주는 건설투자의 둔화(-4.7%p) 및 금리인상은 양도소득세의 감소요인으로, 금리인상은 이자소득세의 증가요인으로 작용
- 명목임금의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는 근로소득세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공서비스부문에서 여성과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고용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세수 증가폭은 둔화될 전망
- 통관수입액의 증가는 관세와 수입분 내국세의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율 하락이 증가폭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의 상승은 명목가격 인상을 통해 국내분 부가가치세 세수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소비의 둔화가 증가세를 제약

□ 2017년 국세수입의 완만한 증가세 전망은 세계경제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에 기반한 것으로, 교역량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작거나 더디게 나타날 경우, 세수증가세는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 있음

[표 1] 2016~2020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억 달러, 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내총생산	2.6	2.7	2.7	2.9	3.0	3.0
민간소비	2.2	2.3	2.2	2.3	2.4	2.4
설비투자	5.3	-1.7	3.0	3.8	3.5	3.6
건설투자	3.9	6.8	2.1	1.2	0.8	0.6
총수출	0.8	1.5	2.2	2.5	2.8	3.0
총수입	3.2	1.9	2.0	2.2	2.3	2.5
상품수출(통관)	-8.0	-5.9	2.8	4.2	4.0	3.8
상품수입(통관)	-16.9	-8.2	5.9	7.2	5.3	5.2
실업률	3.6	3.7	3.7	3.5	3.5	3.6
소비자물가	0.7	1.0	1.6	1.8	1.8	1.9
국고채금리(3년만기)	1.8	1.4	1.7	2.3	2.5	2.5
원/달러 환율(기준환율)	1,131	1,155	1,110	1,081	1,077	1,074
GDP디플레이터	2.2	1.3	1.2	1.3	1.4	1.4
명목국내총생산	4.9	4.0	3.9	4.2	4.4	4.4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 환율과 국고채수익률은 연중 평균

2. 2015년은 실적치, 2016년 이후 수치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II. 2017년 국세수입 전망

1. 2016년 국세수입

가. 총괄

2016년 국세수입은 237.0조원으로, 기업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 자산시장 호조세 지속 등으로 2015년대비 19.1조원(+8.8%) 증가하고, 예산(추경기준)을 4.3조원(+1.8%) 상회할 것으로 전망

- 2016년 1~8월 중 국세수입은 일시적 특이요인 등으로 1/4분기 27.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2/4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신장세를 기록
 - 2016년 1~8월 중 국세수입은 자산시장의 호조세, 2015년 법인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4%(+20.8조원)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다만 증가추세는 1/4분기 일시적 특이요인*이 소멸됨에 따라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
 - 국세 증감(조원/%) : (16.Q1)13.8/27.5 (16.Q2) 4.9/8.6 (16.7~8월)1.8/4.1
 - * (양도소득세, 전년동기대비 41.7%) 2016년 비업무용 토지 중과제도 부활을 앞두고 2015년 말 부동산 거래가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하였으며, 징세시차(2개월)로 작년말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수가 2016년 1/4분기에 징수
 - * (부가가치세, 전년동기대비 43.7%) 2015년말 세수실적 완급조정을 위한 환급시기 조정이 2016년 초 환급감소로 이어진 점도 1/4분기 세수호조에 일부 기여
- 2016년 연간 국세수입은 237.0조원으로, 기업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 자산시장 호조세 지속 등으로 2015년대비 19.1조원(+8.8%) 증가하고 예산(추경기준)을 4.3조원 상회할 것으로 전망
 - 하반기 중 국세수입은 상반기 중 일시적 세수증가 요인이 사라짐에 따라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법인세·소득세의 건조한 증가세 지

속 등으로 2016년 연간 국세수입의 증가율은 2015년에 비해 확대(6.0→8.8%)될 것으로 전망

- 국세수입 증가율이 경상성장을 전망(4.0%)의 두 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6년 국세탄성치는 2.2로 이전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
 - － 국세탄성치 추이: ('13)0.3 ('14)1.0 ('15)1.2 ('16)2.2

□ 세목별로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전반적으로 모든 세목에서 양호한 실적을 시현

- 소득세(+4.4조원, 7.3%)가 2015년 이후의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인세(+7.6조원, 16.9%)가 전년대비 높은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세수증가를 견인, 이외에 부가가치세(+4.7조원, 8.6%)도 2015년의 감소세(－5.2%)에서 반등
- 반면 수입부진으로 관세(－0.2조원, －2.5%)는 전년대비 감소

□ 2016년 예산(추경기준, 232.7조원)에 비해서는 4.3조원(1.8%) 높을 것으로 전망

- 자산시장의 호조세 지속 등에 따른 소득세의 견조한 증가흐름과 2016년 상반기 기업영업실적 호조로 소득세(+1.9조원)와 법인세수(+1.3조원)가 행정부 전망치를 상회

[표 2] 2016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15 실적(A)	2016				
		예산 ¹⁾ (B)	NABO 전망(C)	전년대비 (C-A)		예산 ¹⁾ 대비 (C-B) 차이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217.9	232.7	237.0	19.1	8.8	4.3
일반회계	210.8	225.8	230.3	19.4	9.2	4.4
내국세	182.0	196.4	200.4	18.4	10.1	4.0
1. 소득세	60.7	63.3	65.2	4.4	7.3	1.9
2. 법인세	45.0	51.4	52.6	7.6	16.9	1.3
3. 상속증여세	5.0	5.2	5.2	0.1	2.8	0.0
4. 부가가치세	54.2	59.8	58.8	4.7	8.6	-0.9
5. 개별소비세	8.0	8.6	8.7	0.7	9.0	0.1
6. 증권거래세	4.7	3.8	4.5	-0.1	-2.7	0.7
7. 인 지 세	1.0	0.8	0.9	-0.1	-8.0	0.1
8. 과년도수입	3.4	3.5	4.5	1.0	30.4	1.0
교통·에너지·환경세	14.1	14.8	15.3	1.2	8.5	0.4
관 세	8.5	8.3	8.3	-0.2	-2.5	0.0
교 육 세	4.9	5.0	5.0	0.1	2.0	0.0
종합부동산세	1.4	1.3	1.3	-0.1	-4.3	0.1
특별회계	7.1	6.9	6.8	-0.3	-4.2	-0.2
주 세	3.2	3.3	3.2	0.0	-1.1	-0.1
농 특 세	3.8	3.6	3.6	-0.3	-6.9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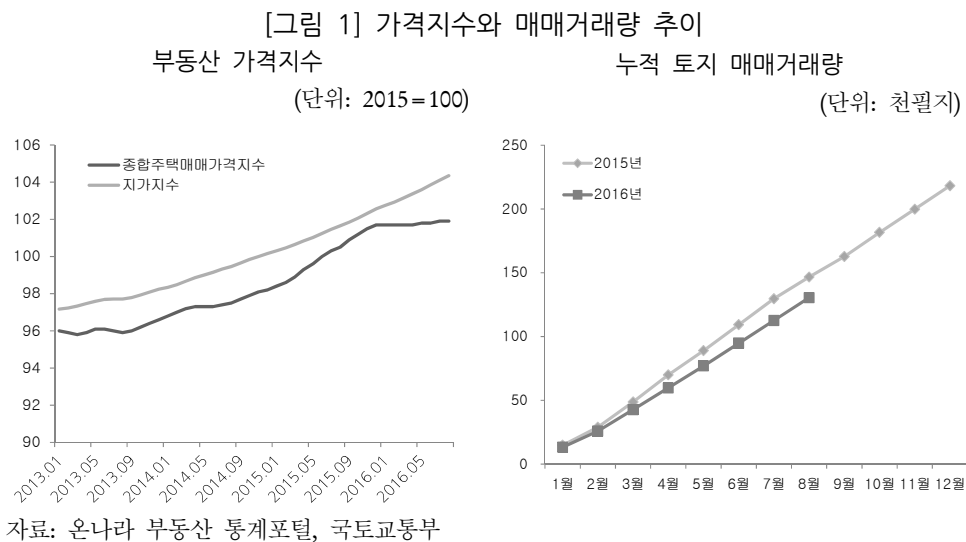
주: 1) 2016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세목별 전망

(1) 소득세

- 취업자수 및 임금 증가에 기인한 근로소득세 증가와 자산시장 호조세 지속에 따른 양도소득세 호조로 소득세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15년 대비 4.4조원(7.3%) 증가, 예산(추경기준, 63.3조원) 대비 1.9조원(2.9%) 초과한 65.2조원으로 예상
- (근로소득세) 취업자수 및 임금이 각각 전년대비 1.1%,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5년대비 3.2조원(11.8%) 증가할 전망
 - 2015년 기업실적 호조에 따른 성과급 증가 등에 의한 임금총액 상승으로 근로소득세의 1/4분기 징수실적이 전년동기대비 약 2조원(25.3%) 증가
 - 2016년 취업자수 및 임금 증가의 영향으로 4월~7월 징수액은 0.8조원(9.0%)의 증가세 시현
 - 예산(추경기준) 대비로는 1.1조원(3.7%) 초과 징수 예상
- (종합소득세) 2015년 경상성장률 증가에 따른 신고소득 증가와, 사전성실 신고지원제도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2015년 대비 0.9조원(7.0%) 증가할 전망
 - 2015년 경상성장률 4.9% 증가의 영향으로 1~8월 세수가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
 - 2016년 5월 확정신고시 사전성실신고지원제도 확대로 신고서상 소득 및 공제내역 제공대상자가 157만명으로 10만명 증가, 개별분석자료 제공항목과 대상자도 확대(2015: 40개/53만명→ 2016: 60개/58만명)

- (양도소득세)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세법개정 세수효과 등으로 2015년의 호조(47.3% 증가)에 이어 2016년에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실적이 예상됨
- 11.8조원으로 예산(추경기준) 대비 0.8조원(7.2%) 초과징수, 2015년 대비 87억원(-0.1%) 소폭 감소 예상
 - 2016년 1~2월 중 매매량은 급감 추세를 보였으나, 3월 중 회복되기 시작하여 3~8월 거래량은 작년 평균과 유사
 - 8월 누계 기준 매매거래량 감소폭은 주택 -18.9%, 토지 -11.1% 수준
 - 주요 세법개정: 감면한도 정비,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부활,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한 세율인상 등



- (기타 소득세) 퇴직소득세가 제도변경 효과로 약 0.5조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자소득세는 저금리 지속으로 2015년 대비 0.5조원 감소
- (퇴직소득세) 2015년말까지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받으면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저율과세가 가능하였음. 이에 제도 종료를 앞두고 중간정산이 증가하여 2016년 초 퇴직소득세수가 증가
 - (이자소득세) 12.9% 감소한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0.5조원 (-18.5%) 감소가 예상됨

[BOX 1] ISA(개인금융자산종합계좌) 도입과 시행경과

- ISA는 저금리 시대에 맞춰 저축 중심의 기존 재산형성 세제지원을 보완·재설계 한 제도로써 2016년 처음 도입되었음
 - 종전 상품별 계좌방식을 최초로 탈피하여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통합 및 손익을 상품별, 기간별로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 통산한 손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저율(9%)과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자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 ISA의 도입과 동시에 기존 재형저축과 소득공제형 장기펀드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짐
- 2016.3월 출시 후 6개월만에 240만명이 가입하였으며 잔고는 2조 8,426억원 규모임(9.9 기준)
 - 기존 유사 세제지원 저축상품과 비교시 ISA의 초기 성과는 안정적인 편
 - 가입대상자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비해 높은 가입 계좌 수를 기록함
 - 또한 여타 상품은 출시 5개월 후 계좌수가 감소세로 이어졌으나 ISA는 여전히 계좌 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세제혜택 상품의 출시 후 월별 계좌 수 증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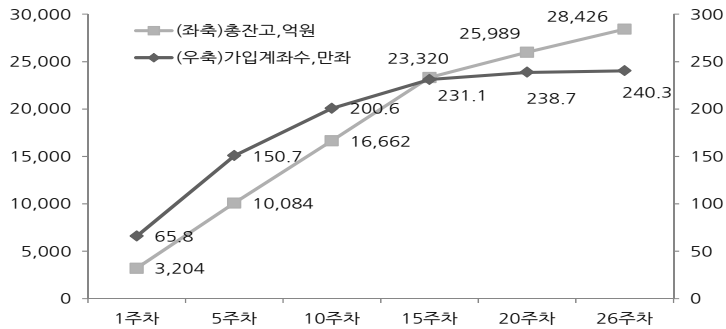
(단위: 만 좌)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5개월 차 누적
재형저축	144.5	28.4	7.7	2.5	-0.3	182.8
소장펀드	10.5	10.8	2.9	1.2	-1.6	23.9
ISA	120.4	57.1	36.3	22.9	1.7	238.5

자료:금융위원회

- (높은 소액계좌 비중) 납입액 1만원 미만의 소액계좌 비중이 출시 이후 점차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57%에 달하여 가입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 (초기효과 소진) 월별 유입금액은 3월~6월 평균 6천억원 이상을 유지하였지만 7월 중 1,397억원으로 급감하였고, 신규 가입 계좌 수도 1.7만좌로 둔화되었음

출시 후 총잔고 및 계좌 수 증가 추이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가입자 수와 납입액 및 수익률 성과는 아직까지 도입 당시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²⁾는 ISA 가입자 수를 406만명으로, 연간 납입액은 약 26.5조원 규모로 가정하여 추계하였으나 현재 가입자는 예상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납입액은 10% 수준에 불과
- 수익률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예상한 4%의 절반 가량인 2%대에 불과 (일임형 수익률 단순평균 기준)
- 도입 첫해 실적으로 예상한 조세지출액은 당초 예상 3,300억원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
 - － 과세계좌에서 발생하던 이자·배당소득이 ISA로 이동하여 비과세되거나 이연된 경우에 세수감소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2016년 납입액 2조 8,246억×수익률 2%×세율격차 14%p = 약 80억원

□ 도입 첫해의 성과만으로 판단할 때 ‘국민의 안정적 자산 증식 지원’ 목적으로 시행한 ISA의 효과는 당초 기대치에 미달

- 잔고의 14% 가량을 차지하는 일임형 계좌의 경우 수익률이 기존의 예금상품과 차별화되기 어려운 수준
 - － 신탁형은 가입자가 스스로 선택한 투자상품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됨
- 낮은 수익률로 인해 세제혜택 금액보다 금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커진다는 지적 존재
 - － 세제혜택 금액은 수익금액에 비례, 금융사 수수료는 납입금액에 비례함
- ISA 계좌이전제 (16.7. 도입) 시행으로 금융사간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 효과를 기대

2) 행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16821) 기타문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신설’, 2015.9.

(2) 법인세

- 2015년 법인실적의 뚜렷한 개선 및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전년(5.6%)보다 증가세가 확대(16.9%)될 것으로 전망)
 - 2015년 대비 7.6조원(16.9%) 증가, 예산(추경기준) 대비 1.3조원(2.5%) 초과한 52.6조원으로 전망
 - 2014년부터 일부 이익지표들이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2015년에는 수익성 개선이 확대됨에 따라 법인세수 증가율이 2015년 5.6%로, 2016년 16.9%로 확대
 - 2015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2016년 3~4월에 신고·납부함에 따라, 2016년 8월까지의 법인세수가 전년동기대비 7.1조원 증가
 - － 순이익률: (외감법인) '13년 2.0%→'14년 2.5%; (상장법인) '14년 3.7%→'15년 3.9%
- 2015년 법인들의 매출액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유가하락 및 비용절감 등에 따라 영업이익과 세전이익이 증가하는 등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 증가
 - (규모별) 2015년 516개 상장법인의 매출액은 1,639조원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각각 14.2%, 3.1% 증가
 - － 2015년 22,386개 외감법인 분석 결과, 매출액은 2,443조원으로 전년대비 2.3%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 및 세전이익은 각각 21.6%, 31.5% 증가
 - (산업별) 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라 비금융법인의 수익성 증대, 특히 수출을 위해 수반되는 수입(원유 등)의 비중이 높은 기초소재업의 경우 수익성 증대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 － 석유정제품제조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30.1% 하락하였으나, 매출원가 하락 동반으로 매출총이익은 35.5% 증가, 세전 이익은 144% 증가
- 2013~2014년 세법 개정 중 최저한세율 인상, 비과세 감면 정비 등에 따라 약 1.0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도 존재할 것으로 전망
 - 최저한세율 인상에 따라 연간 약 0.2조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3)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TV.3. 최근 법인세 추이와 변동 원인' 참고

차등 적용 등에 따라 연간 0.2조원,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과세에 따라 연간 약 0.1조원 등의 세수 증가 발생

[표 3] 외감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단위: 조원)

		2011	2012	2013	2014	2015
매출액	상장	1,090.6	1,146.1	1,152.2	1,140.7	1,110.1
	코스닥	100.2	105.6	110.9	110.3	114.4
	외감	1,075.6	1,143.5	1,199.7	1,249.2	1,218.0
	합계	2,266.3	2,395.2	2,462.7	2,500.2	2,442.5
영업이익	상장	64.0	62.9	63.2	58.4	64.0
	코스닥	6.3	6.3	6.3	6.1	6.6
	외감	55.6	49.7	49.6	48.0	63.6
	합계	125.9	118.9	119.2	112.5	134.1
세전이익	상장	63.3	63.1	52.7	56.6	74.4
	코스닥	5.4	5.0	4.	5.6	5.1
	외감	41.6	36.3	32.7	37.8	52.0
	합계	110.2	104.4	89.4	100.0	131.5

주: KIS-value Database를 이용하여 분석함. 분석대상기업은 2015년 기준 22,386개 기업임

[표 4] 비금융업 기업의 경영성과, 2015년

(단위: 개, 조원, %)

	분석 기업수	매출액 (증가율)	매출 총이익 (증가율)	영업 이익 (증가율)	세전 이익 (증가율)
제조업	2,096	607.0 (-2.3)	134.9 (6.1)	53.8 (13.2)	58.2 (4.0)
소비재업	277	62.5 (4.4)	21.2 (6.6)	5.7 (9.7)	5.6 (13.0)
기초소재업	762	197.9 (-11.2)	38.7 (16.7)	18.4 (28.1)	17.0 (27.8)
(석유정제품제조업)	18	16.2 (-30.1)	1.8 (35.5)	1.0 (74.0)	1.0 (144.0)
조립가공업	1,057	346.5 (2.3)	75.0 (1.2)	29.7 (6.2)	35.6 (-5.6)
기타(서비스업 등)	2,031	337.3 (1.6)	86.8 (5.6)	25.2 (4.8)	26.9 (10.7)
총합계	4,148	1,089.0 (-1.1)	247.9 (6.0)	84.6 (10.7)	87.3 (5.4)

주: Kis-Value Database를 이용하여 분석함.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3) 부가가치세

- 상반기 부가가치세는 환급조정⁴⁾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3% (5.8조원)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지속적인 수입부진 등으로 하반기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전년대비 8.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5년대비 4.7조원(8.6%) 증가, 예산(추경기준) 대비 0.9조원(-1.6%) 부족한 58.8조원으로 전망

- (거시경제 여건) 수출감소로 인한 환급 감소, 민간소비 증가로 인한 국내분 부가가치세 증가를 수입 감소로 인한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가 상쇄
 - (국내분) 상반기 중 국내분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 및 환급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7.5조원(110%)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 전망에 따라 부가가치세수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
 - 명목민간소비(전년동기대비%): (‘14.4q~’15.3q) 1.9~3.5 (‘15.4q~’16.2q) 3.3~4.4
 - 수출(전년동기대비%):(‘15)1.2% (‘16)3.9%/ 환급(상반기,조원):(‘15)15.3 (‘16)10.1
 - (수입분)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1.7조원 감소하였고, 하반기에도 수입부진으로 감소할 전망

- (환급조정) 2015년 말 환급시기 조절로, 2016년 1/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전년동기대비 4.4조원 감소한 5.0조원
 - 2015년 말 경제상황 및 전체 세수규모를 고려한 환급시기 조정이 1/4분기 세수 증가에 일시적으로 기여⁵⁾

4) 부가가치세수는 2015년 4/4분기 실적에 대해 2016년 1월에 신고·납부하고, 2~3월에 환급을 하기 때문에 1~3개월의 시차가 존재함

5) 세수진도비(6월누적 세수/국세수입 예산)가 낮은 해에는 4/4분기의 환급비중이 과거 평균에 비해 낮으며, 반대로 세수진도비가 높은 해에는 4/4분기 환급비중이 과거에 비해 높아짐. 부가가치세 환급실적과 세수진도비 간의 유의한 양(+)의 관계는 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한 해에 과세당국이 환급을 다음해로 이월시키고, 세수가 예상보다 좋은 해에 환급을 더 많이 함을 시사.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2016.5), “세입여건과 조세행정의 관계” 참고.

[표 5]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거시변수 실적 및 전망(전년동기대비 증감율)

(단위: %)

	'151q	'152q	'153q	'154q	'161q	'162q	'163q	'164q	2015	2016
수출(통관,달리기준)	-3.0	-7.3	-9.5	-120	-133	-6.6	-2.7	-1.2	-8.0	-5.9
수입(통관,달리기준)	-156	-156	-187	-178	-162	-105	-5.6	-0.3	-169	-8.2
수출(통관,원화기준)	-0.2	-1.2	3.0	-6.2	-5.7	-1.2	-6.6	-3.1	-1.2	-3.9
수입(통관,원화기준)	-13.1	-10.1	-7.5	-125	-8.4	-5.0	-9.4	-2.2	-108	-6.3
민간소비(명목/실질)	19/15	25/17	35/22	44/33	33/22	41/33	-/21	-/17	3.1/22	33/23
VAT(국내분,조원)	1.8	5.0	5.2	5.1	7.2	7.1	n.a.	n.a.	17.0	n.a.
VAT(수입분,조원)	8.5	9.6	9.8	9.3	7.6	8.7	n.a.	n.a.	37.2	n.a.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4) 교통·에너지·환경세

□ 저유가에 따른 유류 소비량 증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5년(4.6%) 보다 확대된 8.5% 증가 전망

- 2015년 대비 1.2조원(8.5%) 증가, 예산(추경기준) 대비 0.4조원(2.8%) 증가한 15.3조원으로 전망
- 원유 가격은 2014년 6월 말 이후, 18개월만에 70%이상 급락하였으며, 이후에도 저유가 추세 유지
 - 두바이유(배럴당): (2016년.1월) \$26.86 → (1분기) \$30.51 → (2분기) \$43.23 → (하반기 전망) \$44.10⁶⁾
- 2016년 1~8월 휘발유 및 경유 소비량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4.1%, 7.0% 증가
 - 신규 등록 자동차 중 경유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경유 소비량 증가율이 휘발유 소비량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며, 휴가철인 8월 소비량이 급증

6)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년 하반기 국제 원유시황과 유가 전망」, 2016. 7

[표 6] 휘발유 및 경유 소비량

(단위: 만배럴,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2015년	휘발유	615	597	644	633	630	590	643	703	5,052
	경유	1,206	1,196	1,341	1,315	1,304	1,234	1,220	1,365	10,181
2016년	휘발유	651 (6.3)	604 (1.2)	635 (-1.3)	644 (1.8)	660 (4.8)	621 (5.3)	654 (1.6)	791 (12.5)	5,261 (4.1)
	경유	1,353 (12.2)	1,231 (3.0)	1,391 (3.7)	1,397 (6.2)	1,432 (9.8)	1,330 (7.8)	1,253 (2.7)	1,508 (10.4)	10,894 (7.0)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www.petronet.co.kr

(5) 관세

□ 1/4분기 중 환급 조정기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5.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관세는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고, 수입 부진이 계속되면서 전년의 감소세(-2.6%)가 이어질(-2.5%) 전망

- 2015년 대비 0.2조원(2.5%) 감소한 8.3조원으로 전망되며, 예산(추경기준)과 유사한 수준
- 달러기준 통관수입이 8.2% 감소, 원/달러 환율이 18.5원(2.1%)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화기준 통관수입이 전년대비 6.3%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한-중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FTA 국가로부터의 통관수입액(2016.1~8월, -9.3%)이 전체 통관수입액 감소폭(-8.2%)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실효관세율은 전년보다 0.1%p 상승한 1.8%로 전망됨

7) 관세는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시 관세를 징수하였다가, 수출시 환급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 국세환급의 경우, 세입여건이 좋지 않을 때에는 환급을 다음 해로 이월시키고, 세입여건이 좋을 때에는 조기 환급 독려 등으로 당해 연도 환급이 늘어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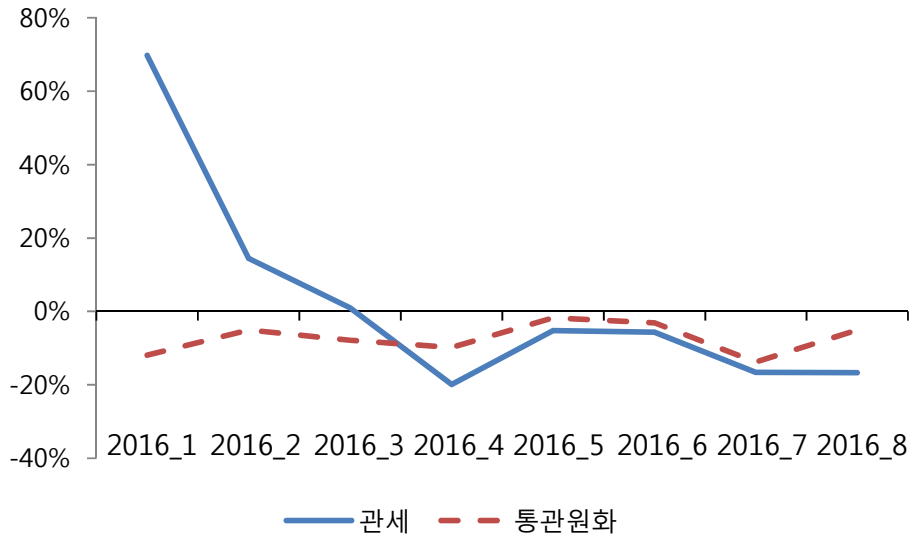
[표 7] 2016년 관세 세수 추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누계(조원)	0.8	1.4	2.1	2.7	3.5	4.2	4.8	5.5
(조원)	(0.3)	(0.4)	(0.4)	(0.2)	(0.2)	(0.1)	(0.0)	(-0.1)
(%)	(69.7)	(40.0)	(25.1)	(9.7)	(5.6)	(3.5)	(0.1)	(-2.1)

주: ()안은 전년동기대비 누계 기준임
자료: 관세청

[그림 2] 관세 및 통관수입액

(단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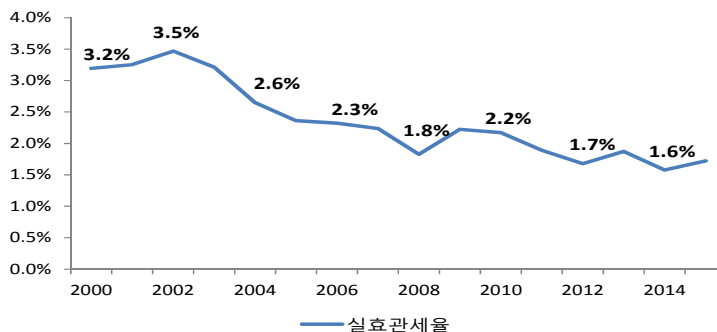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이용해 NABO 작성

[BOX 2] FTA 추진 현황 및 실효관세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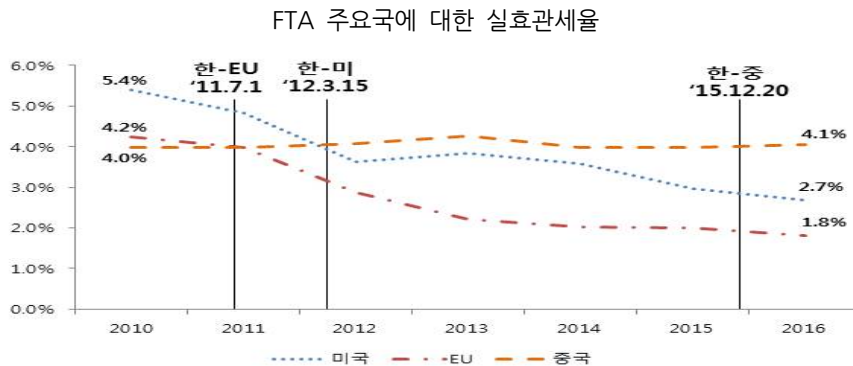
- (FTA와 실효관세율의 관계) FTA는 협정국간 양허조건에 따라 법정관세율보다 낮은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실효관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작용
 - FTA 외에 실효관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는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가 있으나,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이 실효관세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큼
- (FTA 추진 현황)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 발효(2004.4.11.) 이후 최근 발효된 한-콜롬비아 FTA(2016.7.15.)까지 15건(53개국)의 FTA 발효
 - 우리나라의 5대 수입국(2015년 기준: 중국, EU, 일본, 미국, 독일 순) 대부분의 국가와 FTA 체결
 - 5대 수입국 중 FTA 미체결 국가인 일본과는 한-중일 FTA 협상 중
 - (향후 FTA 전망) 3개국 이상의 협상국이 참여하는 Mega FTA(일명 다자 FTA) 협상에 치중할 전망
 - 현재 한-중일, RCEP(16개국), 중미(6개국) 등 다수의 Mega FTA를 협상 중
 - Mega FTA는 기존의 FTA보다 시장개방 효과가 더 크고 광범위 함
- ※ (Mega FTA 추진 목적) 여러 건의 양자 FTA 체결에 따른 각 국가별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FTA 활용이 저하되는 상황(스파게티 볼 효과)을 회피
- (실효관세율) 명목관세율(법정관세율)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원화기준 통관수입액 대비 관세수입의 비중으로 계산
 - (실효관세율 추이) 2000년 이후 완만히 하락(연평균 -3.8%)하여 왔으나, 2011년 이후 하락 폭 확대(연평균 -4.5%)
 - (하락 폭 확대 원인) 2010년까지는 교역규모가 작은 국가와의 FTA로 실효관세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2011년 이후 교역규모가 큰 EU, 미국 등과의 FTA 체결로 하락 속도 가속(2010: 2.2% → 2011: 1.9% → 2012: 1.7%)

실효관세율 추이(2000~2015)



자료: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해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FTA 주요국에 대한 실효관세율) 2010~2016년 8월 기간 중 EU에 대한 실효관세율은 2.4%p 하락(2011.7.1. 발효), 미국은 2.7%p 하락(2012.3.15. 발효), 반면 중국은 0.1%p 증가(2015.12.20.)
 - (FTA 주요국의 실효관세율 하락 원인) 한-EU, 한-미 FTA는 이미 성숙단계(각각 6년차, 5년차)에 진입하여 추가적인 품목 개방과 FTA 특혜관세 활용이 정착, 반면 중국은 발효 후 약 9개월이 경과한 제도정착단계로 미성숙



주: FTA 주요국의 실효관세율은 각 국가별로 관세부과액을 통관수입액으로 나누어 산출
 자료: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해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FTA 수입활용률이 높을수록 실효관세율 하락 효과가 크고, 발효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연차별 관세 인하 스케줄에 따라 FTA 협정관세가 낮아짐에 따라 활용률이 높아짐
 - 2012~2015년 기간 중 한-EU FTA 및 한-미 FTA에 따른 수입활용율은 각각 3.4%p, 3.8%p 증가하였고, FTA 전체로는 4.8%p 증가

FTA (특혜관세) 수입활용율

(단위: %)

	2012	2013	2014	2015
한-EU	67.6	68.6	66.8	71.0
한-미	63.7	68.3	66.0	67.5
FTA 전체	65.4	69.3	68.0	70.2

자료: 관세청

※ (FTA 특혜관세 활용율) FTA에 협상국으로부터의 「특혜관세 대상품목의 수입액」 중 실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액의 비율(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경우는 'FTA 수출활용율',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경우는 'FTA 수입활용율'로 표현)

(6) 개별소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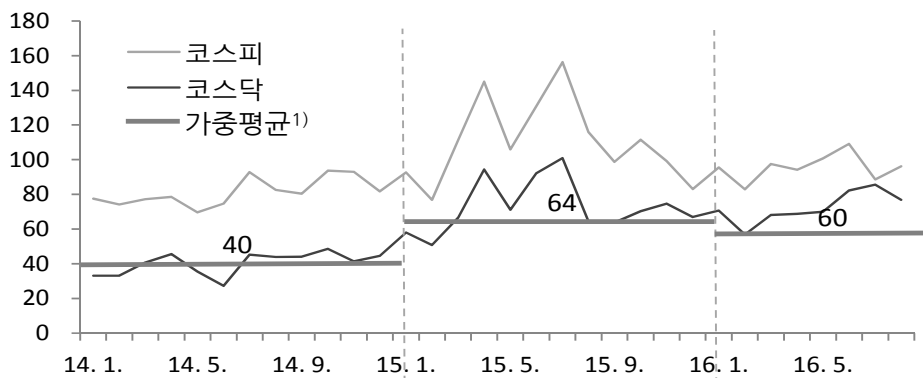
- 담배분 개별소비세 신설로 높은 증가율(42%)을 보였던 2015년에 비해서는 둔화되지만, 담배 반출량 증가 및 발전용 연료에 대한 세율 인상에 따라 과거 평균(2010~2014, 2.6%)보다는 높은 증가율(9%)을 보일 전망
 - 2015년대비 0.7조원 증가(9.0%)하고, 예산(추경기준) 대비 0.1조원(0.8%) 높은 8.7조원으로 전망
 - 유류분 개별소비세는 발전용 천연가스 및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 인상(2015.7, 2016.2.) 효과가 연중 전 기간에 대해 시현되며 전년대비 증가
 - 담배 반출량이 2015년 대비 16.3% 증가한 36.9억갑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배분 개별소비세는 전년대비 0.5조원 증가한 2.2조원으로 전망

(7) 증권거래세

- 유동성 증가 등으로 높은 증가세(49.6%)를 기록하였던 2015년의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
 - 2015년의 높은 증가율(49.6%)에 대한 기저효과로, 전년대비 0.1조원(2.7%) 감소하지만, 예산(추경기준)보다는 0.8조원(19.8%) 높은 4.5조원으로 전망

[그림 3] 증권거래대금

(단위: 조원)



주 ¹)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율의 비율대로 코스피시장(0.15%)과 코스닥시장(0.3%)의 거래대금을 0.5:1로 하여 월별 가중평균한 수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BOX 3] 담배 반출량 추이 및 전망

□ (반출량 추이) 담배 반출량은 담뱃값 인상 전 재고 비축 유인의 존재로 급등(2014. 9.) 및 인상 직후 충격으로 급락(2015. 1.)하는 조정기간을 거친 후, 2015년 하반기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임

- 조정기간을 제외한 최근 1년 간 담배 반출량은 담뱃값 인상 전 대비 -18.4% 감소
 - 담배값 인상충격에 따른 일시적인 급락(2015년 상반기) 기간을 제외하고, 인상 前 2014.1~12월 대비 인상 後 2015.9월~2016.8월까지의 수요량 변화분
- 반출량 감소는 흡연율 감소 및 1인당 소비량 감소에 기인함
 - 2015년 성인 남성 흡연율은 잠정 39.3%로 2014년대비 3.8%p 감소

2014~2016년 담배 반출량

(단위: 백만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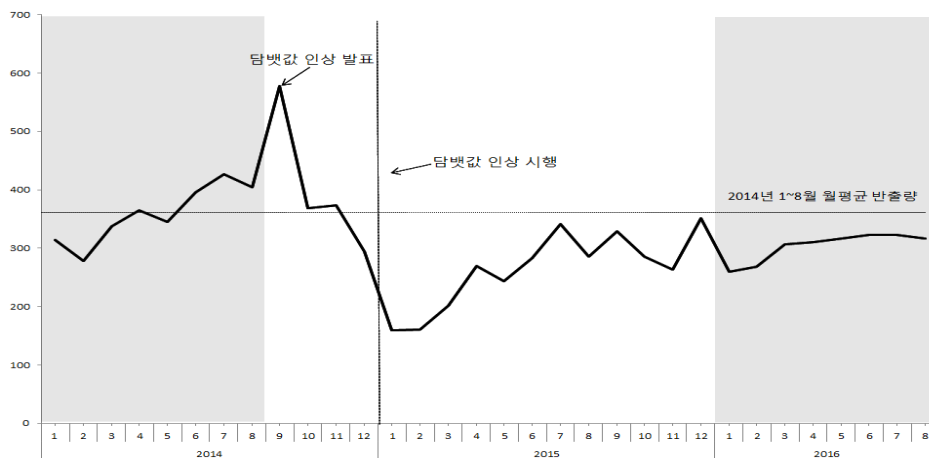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월	연간
2014	314	278	338	365	345	396	427	404	578	369	374	294	2,867	4,483
2015	159	161	201	269	243	283	341	285	329	286	263	351	1,942 (-32.3)	3,171 (-29.3)
2016	259	268	307	310	317	323	323	317	—	—	—	—	2,424 (24.8)	—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증진부담금 납부를 위한 <납부담보확인신청서> 상 신고 기준

담배 반출량 추이

(단위: 백만갑)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증진부담금 납부를 위한 <납부담보확인신청서> 상 신고 기준

- (향후 반출량 전망) 2016년 반출량은 2015년대비 증가할 예정이나, 2017년 이후 담배갑 경고그림 의무표기 등 금연정책의 결과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6년) 3월 이후 안정적인 반출량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간 반출량은 2015년대비 16.4% 증가한 36.9억갑으로 전망
 - (2017년 이후) 추가적인 소비량 증가 요인이 없는 가운데 담배갑 경고그림 의무표기 등 금연정책이 소비량 감소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담배 반출량은 점차 감소할 전망
- ※ 해외 사례: 주요국가 10개국의 사례에서 담배갑 경고그림 의무표기 제도 시행 후 인구 1인당 담배소비량이 꾸준히 감소
- 각 국가의 흡연율, 경고그림의 크기, 그림이 혐오감을 주는 정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 도입 후 담배 소비량 감소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경고그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30%(경고문구 포함 50%)로 비교적 작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소폭은 제한될 수 있음

주요국가의 담배갑 경고그림 도입 이후 인구 1인당 담배소비량 변화

(단위: 그래, %)

국가	도입연도	인구 1인당 담배소비량					증가율	
		도입 전년도	도입 1년차	도입 2년차	도입 3년차	도입 4년차	도입 1년차	도입 2년차 이후
캐나다	2001	1,429	1,294	1,203	1,108	1,020	-9.4	-7.6
스위스	2011	1,993	1,796	1,690	1,791	1,695	-9.9	-1.9
아이슬란드	2013	1,189	1,051	1,059	—	—	-11.6	-0.8
호주	2006	1,219	1,180	1,201	1,130	1,064	-3.2	-3.4
헝가리	2013	1,754	1,636	—	—	—	-6.7	—
아일랜드	2013	1,163	1,026	982	—	—	-11.8	-4.3
뉴질랜드	2009	1,016	967	848	771	758	-4.8	-7.8
노르웨이	2011	1,123	1,073	994	924	837	-4.5	-7.9
터키	2010	1,451	1,211	1,113	1,174	1,042	-16.5	-4.9
영국	2008	1,004	946	1,086	1,004	955	-5.8	0.3
평균	—	—	—	—	—	—	-8.4	-4.1

자료: 제도 도입연도 - 한국건강증진연구원

인구 1인당 담배소비량 - OECD statistics

2. 2017년 국세수입

가. 총괄

2017년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244.2조원으로, 행정부 국세수입 예산안(241.8조원)에 비해서 2.5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

- 2017년 국세수입은 2016년 대비 3.0% 증가한 244.2조원으로 전망
 - 전년대비 국세수입 증가율(3.0%)은 2016년의 실적호조에 따른 반락과 자산시장의 호조세 둔화 등에 따라 2016년 8.8%에 비해서 둔화될 전망
- 세목별로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2016년에 이어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증가추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소득세) 68.1조원으로, 근로·종합소득세수의 견조한 증가세(7.2%)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자산시장의 회복세 둔화로 양도소득세의 감소세가 확대(-0.1%→-3.8%)됨에 따라 전체 소득세수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7.3%→4.5%)
 - (법인세) 54.2조원으로, 2016년 기업의 영업실적 개선으로 2017년에도 증가가 예상되나, 2016년 법인세수의 높은 증가율(16.9%)에 대한 반락으로 증가율은 3.0%로 둔화될 전망
 - (부가가치세) 61.2조원으로, 대외여건 개선으로 수입이 2016년의 부진에서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1%의 완만한 증가 예상
- 국세수입 예산안(241.8조원)대비로는 2.5조원(1.0%) 높을 것으로 전망
 - NABO의 2017년 경상성장률 전망은 3.9%로, 행정부 전망치 4.1%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이나 2017년 세수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16년 국세수입 전망을 행정부예상보다 4.3조원(1.8%) 높게 보고 있는데 주로 기인
 - 2017년 GDP성장률 전망치(실질/경상, %): (행정부)3.0/4.1 (NABO)2.7/3.9
 - 2017년 국세수입 증가율: (행정부)3.9% (NABO)3.0%
 -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견조한 증가흐름과 2016년 기업영업실적 호조로 소득세수(+2.8조원)와 법인세수(+0.3조원)가 행정부 전망치를 상회

[표 8] 2017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16 NABO 전망(A)	2017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대비 (C-A)		예산안대비 (C-B) 차이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237.0	241.8	244.2	7.2	3.0	2.5
일반회계	230.3	234.6	237.2	6.9	3.0	2.6
내국세	200.4	203.8	206.7	6.3	3.1	2.9
1. 소득세	65.2	65.3	68.1	2.9	4.5	2.8
2. 법인세	52.6	54.0	54.2	1.6	3.0	0.3
3. 상속증여세	5.2	5.3	5.4	0.2	3.4	0.0
4. 부가가치세	58.8	61.5	61.2	2.4	4.1	-0.3
5. 개별소비세	8.7	9.0	9.0	0.3	3.7	0.0
6. 증권거래세	4.5	4.0	4.0	-0.6	-13.0	-0.1
7. 인 지 세	0.9	0.9	0.9	0.0	3.9	0.0
8. 과년도수입	4.5	3.8	3.9	-0.6	-13.0	0.1
교통·에너지·환경세	15.3	15.4	15.5	0.3	2.0	0.2
관 세	8.3	9.0	8.5	0.2	2.3	-0.5
교 육 세	5.0	5.1	5.1	0.1	3.0	0.0
종합부동산세	1.3	1.4	1.4	0.0	3.4	0.0
특별회계	6.8	7.1	7.0	0.3	3.8	-0.1
주 세	3.2	3.3	3.3	0.1	2.8	-0.1
농 특 세	3.6	3.8	3.7	0.2	4.8	-0.1

나. 세목별 전망

(1) 소득세

□ 근로·종합소득세는 건조한 증가세(7.2%)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도소득세가 감소세(−3.8%)로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전체 소득세의 증가세는 2016년(7.3%)보다 둔화(4.5%)될 전망

- 예산안대비 2.8조원(4.3%) 높고, 2016년 NABO 전망대비 2.9조원(4.5%) 증가한 68.1조원으로 전망
 - － 1~8월 소득세 징수 추이를 감안하여, NABO는 2016년 세수를 2017년 예산안(65.3조원)과 유사한 65.2조원으로 예측함에 따라 2017년 세수를 행정부보다 높게 전망

[표 9] 2017년 소득세수 전망

(단위: 조원, %)

	2016 NABO 전망(A)	2017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대비 (C-A)		예산안대비 (C-B) 차이
				증감액	증감률	
소득세 계	65.2	65.3	68.1	2.9	4.5	2.8
신고분	25.5	25.1	25.8	0.3	1.1	0.7
종합소득세	13.7	14.4	14.4	0.7	5.3	0.0
양도소득세	11.8	10.7	11.4	−0.5	−3.8	0.7
원천분	39.6	40.2	42.3	2.7	6.7	2.1
이자소득세	2.1	2.0	2.1	0.1	4.7	0.1
배당소득세	2.1	2.2	2.3	0.3	12.2	0.2
사업소득세	2.4	2.4	2.6	0.1	4.8	0.2
근로소득세	30.2	30.8	32.7	2.4	8.1	1.9
기타소득세	1.2	1.4	1.3	0.1	6.2	−0.1
퇴직소득세	1.6	1.4	1.2	−0.3	−20.8	−0.1

- (근로소득세) 32.7조원으로, 고소득자 증가 및 실효세율 상승 추세와 명목임금 상승(3.8%), 취업자 수 증가(1.1%)등에 따라 8.1%의 증가율을 예상
 - － 연간 총급여 1억원 초과인 고소득자는 인원 측면에서 전체의 3% 수준이지만, 근로소득세수의 약 50%를 부담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인원수가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실효세율 역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2014)으로 상승한 이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됨 (아래 [표 10] 참고)

[표 10]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증가 추세

(단위: 만 명, 퍼센트)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급여 1억원 초과자 수 (증가율)	28.0	36.2 (29.3)	41.5 (14.9)	47.2 (13.7)	52.6 (11.5)
전체 인원 대비 1억원 초과자 비중	1.8%	2.3%	2.6%	2.9%	3.2%
전체 결정세액 대비 1억원 초과자의 세액 비중	44.0%	46.8%	47.2%	48.0%	51.6%
1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 (결정세액/총급여)	15.7%	15.1%	15.0%	15.0%	16.6%
비교: 전체 총급여 인원 (증가율)	1,514	1,548 (2.2)	1,572 (1.5)	1,630 (3.7)	1,663 (2.1)
실효세율 (결정세액/총급여)	3.9%	4.1%	4.3%	4.5%	2.5%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 (종합소득세) 14.4조원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종합소득 신고액 증가가 예상되어, 2016년보다 5.3%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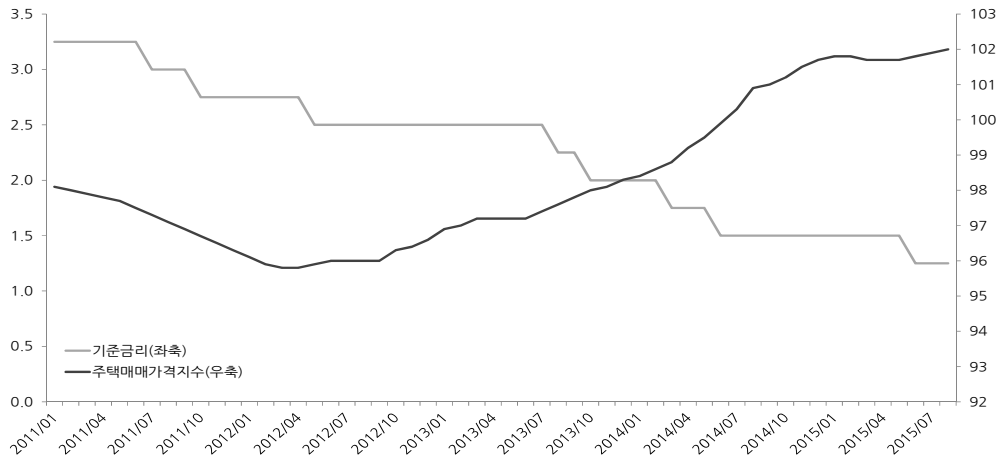
□ 2017년 중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는 경우 자산시장 호조세 약화로 양도소득세수는 감소(-3.8%)하고, 이자소득세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소폭의 증가(4.7%)세가 예상됨

- 2016년 말~2017년 중 미국이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함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도 이의 영향으로 2017년 중 인상 가능성이 높음
- 기준금리 인하 추이가 유지된 2013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가격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금리 인상 기조 전환시 유동성 감소, 투자심리 약화 등

으로 자산시장이 위축될 가능성 존재

- (NABO 국고채 금리 전망) 2016: 1.4% → 2017: 1.7%(+0.3%p)

[그림 4] 기준금리와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추이



자료: 한국은행, 한국감정원

- 퇴직소득세는 세법개정에 따른 2016년 세수의 일시적 효과에 대한 반락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0.3조원) 감소할 전망

- 임원이 연봉제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받아 이에 대해 저율(10%)과세되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 동 제도의 2015년 말 종료를 앞두고 중간정산이 2015년 말 증가하여 2016년 초 퇴직소득세수가 일시적으로 증가

(2) 법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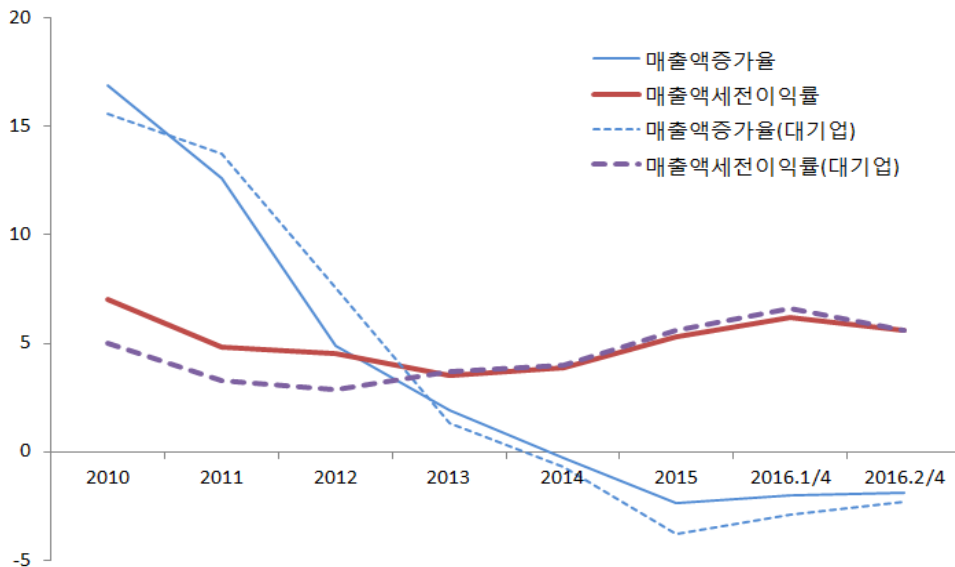
- 2016년 법인실적 개선 및 세법개정 효과 등으로 인해 법인세수는 2016년의 호조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2016년의 높은 증가율(17%)에 따른 기저효과, 구조조정 및 금융업의 실적 악화와 같은 세수감소 요인에 따라 증가율이 3%로 둔화될 전망
- 예산안대비 0.3조원(0.5%) 높고, 2016년 NABO 전망대비 1.6조원(3.0%) 증가한 54.2조원으로 전망

□ 2016년 법인들의 상반기 수익성 개선이 하반기의 실적 하락과 다소 상쇄될 것으로 예상됨

- (규모별) 상장법인의 '16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소폭(0.6%)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영업이익, 연결순이익은 각각 14.4%, 20.2%로 큰 폭으로 증가⁸⁾
 -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쉽 상품인 갤럭시 노트7의 불량문제 및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등으로 이익 증가 추세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
- (산업별) 상대적으로 세수 비중이 큰 전자, 정유, 석유화학, 항공, 통신 업종의 이익 전망이 밝은 편이나, 전체 세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업종의 실적 악화가 법인세수 증대를 제약할 가능성
 - 일부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특수은행이 큰 폭의 적자(-2.0조원)를 기록함에 따라 금융업종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32% 감소

[그림 5] 기업경영분석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속보자료 취합

8)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 12월 결산 상장법인 593사 중 514사. 매출액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12.52%) 제외시 연결매출액 0.01% 증가, 연결영업이익 및 연결순이익 각각 14.2%, 24.9% 증가

[표 11] 금융업종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조원)

	2013	2014	2015					2016		16
				1q	2q	3q	4q	1q	2q	상반기
국내은행	4.00	6.00	3.50	2.10	2.20	1.30	-2.10	2.30	-0.4	1.9
(일반은행)	4.70	4.90	4.40	1.60	1.90	1.00	0.00	2.00	1.6	3.6
생명보험	2.82	3.24	3.63	1.31	1.49	0.89	-0.06	1.33	0.97	2.30
손해보험	2.00	2.31	2.65	0.82	0.85	0.62	0.36	0.91	1.12	2.03
증권회사	0.26	1.68	3.23	0.98	1.20	0.75	0.31	0.61	0.62	1.23
합계	9.08	13.31	13.01	5.21	5.74	3.56	-1.50	5.14	2.31	7.45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41.9	46.7	-2.3	67.1	24.6	-14.0	-208.6	-1.3	-59.7	-31.9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2015년 세법개정 중 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과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 등의 세수증가 효과가 2017년부터 발생함에 따라, 약 4천억원의 세수 증대 전망
- 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과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으로 각각 0.3, 0.2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전망

(3) 부가가치세

- 2017년 내수 부진 전망 등에 따라 세수 증가율은 둔화(8.6%→4.1%)되나, 수입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고, 명목민간소비 증가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수 증가율은 국세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예산안대비 0.3조원(-0.5%) 부족, 2016년 NABO 전망대비 2.4조원(4.1%) 증가한 61.2조원으로 전망
 - (국내분) 소비심리 둔화·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으로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지만, 유가 상승 등으로 명목민간소비 증가율은 확대될 전망이며 원화기준 통관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수입분) 통관수입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부가가치세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표 12]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거시변수 실적 및 전망(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단위: %)

	'16.1q	'16.2q	'16.3q	'16.4q	'17.1q	'17.2q	'17.3q	'17.4q	2016	2017
수출(통관,달러기준)	-133	-6.6	-2.7	-1.2	3.2	2.3	2.8	4.7	-5.9	2.8
수입(통관,달러기준)	-162	-105	-5.6	-0.3	5.9	8.1	5.3	6.2	-8.2	5.9
수출(통관,원화기준)	-5.7	-1.2	-6.6	-3.1	-3.2	-2.0	1.3	1.2	-3.9	-1.2
수입(통관,원화기준)	-8.4	-5.0	-9.4	-2.2	-1.1	3.2	3.8	2.7	-6.3	1.8
민간소비(실질)	2.2	3.3	2.1	1.7	2.3	2.0	2.2	2.4	2.3	2.2

자료: 한국은행 실적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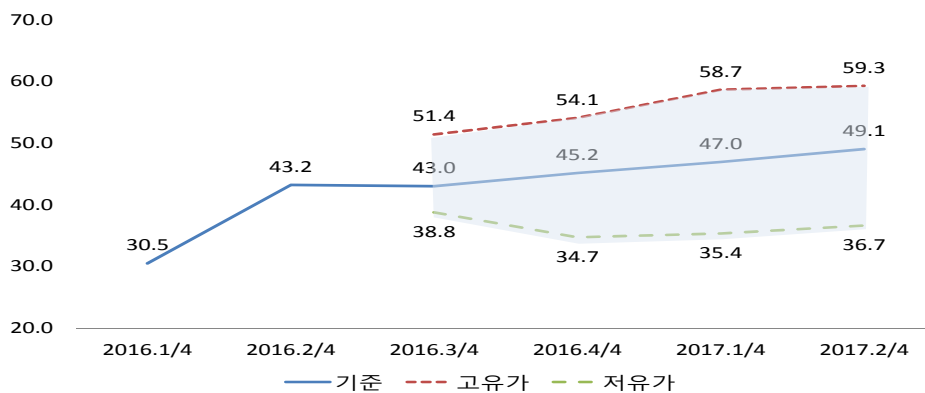
(4) 교통·에너지·환경세

□ 유가상승으로 인해 수송용 휘발유 및 경유 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증가율이 전년의 8.5%에서 2.0%로 둔화될 전망

- 예산안대비 0.2조원(1.1%) 높고, 2016년 NABO 전망대비 0.3조원(2.0%) 증가한 15.5조원으로 전망
-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2016년 하반기 40.49\$/배럴에서 2017년 상반기 48.00\$/배럴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2017년 수송용 석유 소비는 40.4백만toe로 2016년대비 약 1.9%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6] 시나리오별 원유가격 전망

(단위: 두바이유, \$/배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9)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년 하반기 국제 원유시황과 유가 전망」, 2016. 7

(5) 관세

- 수입이 2015년 1분기부터 꾸준히 감소세였으나, 내년에는 대외여건 개선에 따라 증가세로 반등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관세도 3년 연속(2014~2016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원화기준 통관수입액이 전년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7년 관세는 2016년 NABO 전망 대비 2.3% 증가한 8.5조원으로 전망
 - － 통관수입액(달러화 기준)이 전년대비 5.9% 증가되고, 원/달러 환율이 전년대비 45.0원(-3.9%)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단, 한-중 FTA가 발효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연차별 관세 인하 스케줄 등에 따라 수입시 제도 활용률이 증가하는 경우, 관세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6) 개별소비세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등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 증가 둔화, 담뱃값 인상 이후 수요 안정화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9.0%→3.7%)
 - 2016년 NABO 전망대비 0.3조원(3.7%) 증가한 9.0조원으로 전망
 - 유류분 개별소비세의 경우, 에너지 수요 증가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6년 대비 0.2조원 증가에 그칠 전망
 - － 발전용 천연가스분은 0.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발전용 유연탄분은 세율인상효과(0.4조원)를 반영할 경우, 0.6조원 증가할 전망
 - 담배분 개별소비세는 담뱃값 인상 이후 수요 안정화, 담배갑 경고그림 의무표기(2016. 12. 23. 시행 예정) 등에 따라 감소세로 전환

[표 13]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 변화

(단위: 원/kg)

순발열량(kcal/kg)	2014. 1월	2015. 7월	2016. 2월	2017. 4월(예정)
5,000kcal 미만	17	22	21	27
5,000kcal 이상 5,500kcal 미만	19	24	24	30
5,500kcal 이상			27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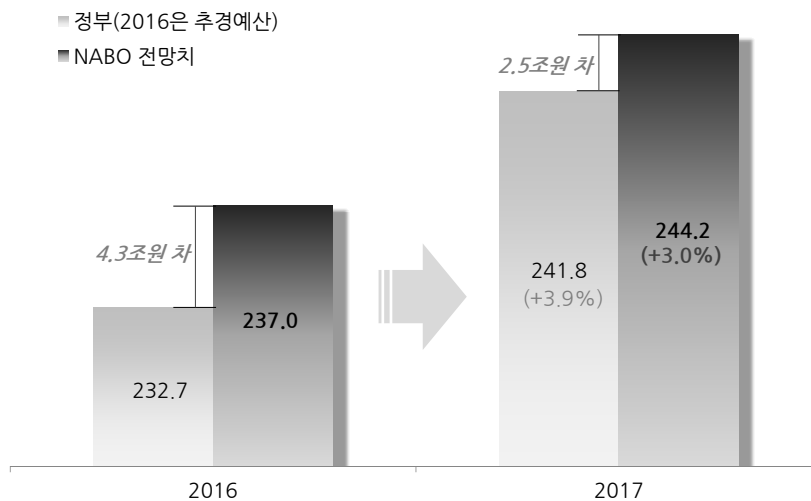
3. 2017년 국세 세입예산안과의 비교

가. 총괄

NABO 2017년 국세수입 전망은 행정부의 국세 세입예산안(241.8조원)보다 약 2.5조원(1.0%) 높은 수준

- 2017년 경상성장률 차이 등으로 NABO의 2017년 국세수입 증가율 전망(3.0%)은 행정부 증가율(3.9%)보다 낮은 수준이나,
 - 2017년 GDP성장률 전망치(실질/경상, %): (NABO)2.7/3.9 (행정부)3.0/4.1
- 2017년 국세수입 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16년 국세수입을 NABO가 행정부보다 4.3조원(1.8%) 높게 보고 있음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2.5조원 상회

[그림 7] NABO 전망과 세입예산안 비교



나. 세목별 비교

(1) 소득세

□ 2016년 세수의 기저효과에 기인하여 예산안보다 2.8조원(4.3%) 높은 68.1조원으로 전망

- 2016 예산(추경기준) 대비 근로소득세 1.1조원, 양도소득세 0.8조원 초과징수가 예상되어 행정부보다 1.9조원(2.9%) 높은 2016년 소득세수를 전제로 2017년 세수를 전망함에 따라 예산안과의 차이 증가
 - － 1~8월 세입실적을 반영한 NABO의 2016년 소득세수 예상치(65.2조원)는 행정부의 2017년 소득세 세입예산(65.3조원)과 유사한 수준
 - NABO와 행정부 모두 2017년 양도소득세 감소를 예상하는 가운데, 근로소득세에서 NABO는 과거 증가율을 감안하여 8.1%로 전망하였으나 행정부는 이보다 보수적으로 전망(5.5%)함에 따라 2017년 소득세수 전망 차 확대
 - － 2011~2015 연평균 근로소득세수 증가율 : 10.1%
 - － 양도소득세 감소율 전망(행정부/NABO, %) : -3.3 / -3.8

(2) 법인세

□ 54.2조원으로 예산안보다 0.3조원(0.5%) 높을 것으로 전망

- 2016년 예산(추경기준)보다 1.3조원 높게 전망하고 있는 기저효과로 인해 예산안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증가율은 2016년 하반기 법인실적 악화 전망을 반영함에 따라, 2017년 법인세 증가율은 3.0%로, 예산안(5.1%)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3) 부가가치세

□ 기저효과와 대외전망에 대한 차이 등으로 예산안보다 0.3조원(-0.5%) 낮을 것으로 예상

- NABO가 부가가치세를 2016년 예산(추경기준)보다 1.0조원 낮게 전망하고 있는 기저효과와 상품수지의 감소폭을 NABO가 행정부보다 작게 보고 있는 데 기인

(4) 교통·에너지·환경세

□ 최근 세수증가율이 소비량 증가율을 상회하는 추세를 반영, 예산안보다 0.2조원(1.1%) 높게 전망

- 2016년 1~7월 세수실적은 동기간 휘발유 및 경유 소비량 증가율(2.8%/6.5%)을 넘어선 9.9%의 증가세를 나타내며, 연간실적은 예산(추경기준)을 0.4조원(2.8%) 초과할 전망
- 예산안은 추경대비 증가율을 3.6%로 예측하는 한편 NABO는 2017년 세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2.0%의 완만한 수준으로 예상

(5) 관세

□ 환율과 수입액 전망 차이에 따라, 예산안보다 0.5조원(-5.7%) 낮을 것으로 예상

- 실효세율 전망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통관수입액을 NABO가 행정부보다 각각 3.5%, 5.0% 낮게 가정하고 있으며, 2016년 통관수입액도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기인

[표 14] 2017년 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행정부		NABO		차이 (NABO -행정부)
	'17 예산안	증감률 ('16 예산대비)	'17 전망	증감률 ('16 전망대비)	
총 국 세	241.8	3.9	244.2	3.0	2.5
내국세	203.8	3.7	206.7	3.1	2.9
1. 소득세	65.3	3.1	68.1	4.5	2.8
2. 법인세	54.0	5.1	54.2	3.0	0.3
3. 상속증여세	5.3	2.1	5.4	3.4	0.0
4. 부가가치세	61.5	3.0	61.2	4.1	-0.3
5. 개별소비세	9.0	4.2	9.0	3.7	0.0
6. 증권거래세	4.0	5.8	4.0	-13.0	-0.1
7. 인 지 세	0.9	8.7	0.9	3.9	0.0
8. 과년도수입	3.8	7.1	3.9	-13.0	0.1
교통·에너지·환경세	15.4	3.6	15.5	2.0	0.2
관 세	9.0	8.4	8.5	2.3	-0.5
교 육 세	5.1	2.0	5.1	3.0	0.0
종합부동산세	1.4	10.7	1.4	3.4	0.0
주 세	3.3	1.3	3.3	2.8	-0.1
농 특 세	3.8	4.5	3.7	4.8	-0.1

주: 1) 2016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III.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1. 2016~2020년 중기 거시경제 여건 및 전망

- (거시경제 여건) NABO의 중기 경상성장률 전망은 연평균 4.2%로써, 내수와 수출 회복의 둔화로 저성장이 전망되지만 2017년 이후 유가 상승등으로 인한 완만한 물가상승 압력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하는 데 기인
 - 인구구조변화는 내수 회복세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는 수출 증가율을 각각 제약하여 실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9% 수준에 머물 전망
 - 2017년 국제유가는 전년대비 20%대 상승률이 예상되며, 중기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1.9%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세입 전망의 전제) 국내경제의 완만하고 안정적인 성장이 유지되는 경우 민간소비와 취업자 수의 증가 추세가 유지되며, 경상수지 흑자기조 정착 등은 국세수입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경기회복세의 유지와 이에 기인한 임금, 소득상승 및 취업자 수의 꾸준한 증가는 법인세와 소득세 세입기반의 성장에 기여할 전망
 - 완만한 경제성장률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연평균 3.9%,경상)는 부가가치세수 증가세에 긍정적으로 작용
- 그러나 자산시장 둔화 위험 등 대내외 경제요인의 변동성을 고려시, 향후 중기 국세수입 증가세의 확대가 제약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
 - 최근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자산시장의 호조세가 가계부채 부실과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약화될 경우, 중기적인 국세수입 증가 여건은 빠르게 위축될 수 있음
 - 대외적 불안요인으로는 중국의 경기하방리스크, 중동 분쟁 격화에 따른 유가 급변동이 존재

[표 15] 2016~2020년 경상GDP와 국세수입 전망(NABO)

(단위: 조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16~'20	'11~'15
경상GDP (증가율)	1,621 4.0	1,685 3.9	1,756 4.2	1,834 4.4	1,915 4.4	4.3	4.0
국 세 (증가율)	237.0 8.8	244.2 3.0	253.8 3.9	264.8 4.3	276.1 4.2	3.9	3.2
국세부담률	14.6	14.5	14.5	14.4	14.4	14.5	14.2
국세탄성치	2.2	0.8	0.9	1.0	1.0	0.9	0.8

주: 1. 국세부담률 = 국세/경상GDP

2. 국세탄성치 = 국세 증가율/경상GDP 증가율

2.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 2016 ~ 2020년 간 국세수입은 237.0조원에서 276.1조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하나 동기간 중 경상성장률 전망(4.3%)을 하회
 - 법인 실적 부진 및 자산시장 정체 시기를 포함하는 직전 5년(2011 ~ 2015)에 비해서는 국세수입 탄성치 및 연평균증가율이 다소 상승하는 모습
 - 국세수입 탄성치 : 0.8→0.9 / 연평균 증가율 : 3.2%→3.9%
- 소득세는 취업자수와 평균임금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16년 65.2조원에서 2020년 81.5조원으로 연평균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이후 경상성장률, 명목임금 및 이자율의 지속적인 상승 전망으로 근로 소득, 종합소득을 비롯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세 등의 견실한 증가세가 예상됨
 - 그러나 취업자수 등 소득세 기반의 증가율이 이전 중기에 비해 하향 안정화 되고 특히 자산시장의 하강국면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연평균증가율은 2011 ~ 2015년의 9.5%에서 5.7%로 낮아질 전망
- 법인세는 영업이익률 하락 추세등을 반영하여 2016년 52.6조원에서, 2020년 60.6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6년은 법인실적 개선 등에 따라 16.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2017년부터는 기저효과, 영업이익률의 하락,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0.8~1 사이의 탄력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법인 영업실적의 부진이 이어졌던 2012~2014년이 포함된 2011~2015년의 연평균증가율 0.1%에 비해서는 다소 확대된 수준
- 부가가치세는 2016년 58.8조원에서 2020년 69.6조원으로 경상성장률과 유사한 연평균 4.3%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2017년에는 수입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명목민간소비 증가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2018년 이후 가계부채의 증대가 소비 증대를 제약하면서, 경상성장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지방소비세를 인상(2014년)이 포함된 2011~2015년의 연평균증가율 1.1%에 비해서는 다소 확대된 수준
- 개별소비세는 담배분 세수 감소 전망 등으로 2016년 8.7조원에서 2020년 9.2조원까지 증가하여 연평균 1.3%의 증가율이 예상됨
 - 담배갑 경고그림 의무표기 시행(2016.12.23.) 등 금연정책의 결과 담배분 개별소비세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17년 발전용 유연탄의 소비 증가 및 세율 인상 등에 따라 3.7% 증가한 후, 2018년 이후 낮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이 있었던 2015년이 포함된 2011~2015년의 연평균증가율 9.6%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가가 안정기에 접어듬에 따라 2016년 15.3조원에서, 2020년 16.1조원으로 연평균 1.3% 증가할 전망
 - 휘발유 및 경유 소비량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국제유가의 큰 폭의 하락(2014년 하반기)이 있었던 2011~2015년의 연평균 증가율 5.0%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

[표 16]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NABO)

(단위: 조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16~'20	'11~'15
NABO 국세	237.0	244.2	253.8	264.8	276.1	3.9	3.2
일반회계	230.3	237.2	246.6	257.3	268.3	3.9	3.3
내국세	200.4	206.7	215.5	225.6	236.0	4.2	3.8
1. 소득세	65.2	68.1	71.9	76.6	81.5	5.7	9.5
2. 법인세	52.6	54.2	56.5	58.5	60.6	3.6	0.1
3. 상속증여세	5.2	5.4	5.5	5.6	5.7	2.6	10.9
4. 부가가치세	58.8	61.2	63.8	66.6	69.6	4.3	1.1
5. 개별소비세	8.7	9.0	9.2	9.1	9.2	1.3	9.6
6. 증권거래세	4.5	4.0	3.6	3.8	4.0	-3.0	2.2
7. 인 지 세	0.9	0.9	1.0	1.0	1.0	4.3	11.2
8. 과년도수입	4.5	3.9	4.1	4.2	4.4	-0.3	-5.1
교통·에너지·환경세	15.3	15.5	15.8	15.9	16.1	1.3	5.0
관 세	8.3	8.5	8.7	9.0	9.4	3.1	-6.2
교 육 세	5.0	5.1	5.2	5.3	5.4	2.1	3.5
종합부동산세	1.3	1.4	1.4	1.4	1.5	2.6	6.1
특별회계	6.8	7.0	7.2	7.5	7.7	3.4	-1.3
주 세	3.2	3.3	3.4	3.4	3.5	2.5	6.3
농 특 세	3.6	3.7	3.9	4.0	4.2	4.3	-6.0

3. 2016~2020년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 NABO는 국세수입이 2016년 237.0조원에서 2020년 276.1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나, 행정부는 동기간 232.7조원에서 277.2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차이의 누적 합계는 총 7.6조원으로 주로 2016~2017년 전망에서 발생하는 데, 이는 NABO가 2016년 예산(추경기준) 대비 초과세수가 4.3조원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기인함
- 중기 국세수입 증가율은 NABO가 3.9%로, 행정부가 4.5%로 전망
 - 증가율 차에 따라 국세수입 규모 전망치는 2016년에는 NABO가 4.3조원 더 높으나, 2020년에는 행정부가 1.1조원 더 높아짐
 - 이와 같은 차이는 최근 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는 자산시장 및 건설경기가 중기적으로는 약화될 전망임에 따라 행정부에 비해 낮은 경상성장률을 예상하는 데 따름
 - － NABO는 중기 경상성장률을 4.3%로 행정부(4.7%)에 비해 0.5%p 낮게 전망하고 있으며, 차이는 2016년 0.0%p에서 2020년 0.7%p까지 확대되는 모습

[표 17] 2016~2020년 NABO 전망과 행정부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가율/합계
NABO	국세수입	237.0	244.2	253.8	264.8	276.1	(3.9)
	경상성장률	4.0	3.9	4.2	4.4	4.4	(4.3)
	국세탄성치	2.2	0.8	0.9	1.0	1.0	—
행정부	국세수입	232.7	241.8	252.1	264.5	277.2	(4.5)
	경상성장률	4.0 ¹⁾	4.1	4.7	5.1	5.1	(4.7)
	국세탄성치	1.7	0.9	0.9	1.0	0.9	—
차이 (NABO-행정부)	국세수입	4.3	2.5	1.7	0.3	-1.1	7.6
	경상성장률	0.0	-0.2	-0.5	-0.7	-0.7	—
	국세탄성치	0.5	-0.1	0.0	0.0	0.1	—

주: 1. ()는 연평균 증가율

2. 2016년 이후 행정부 경상성장률은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IV.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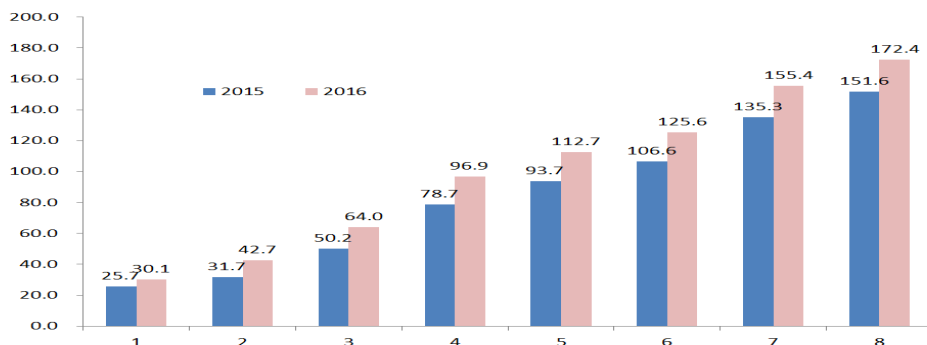
1. 최근 국세수입 호조 원인 분석

가. 논의 배경

- 최근 국내경제는 내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수출입 등 대외부문 부진도 지속되면서 낮은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1~8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0.8조원(14%) 증가하는 등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2016년 민간소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고, 수출입은 전년의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
 - 반면, 1~8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151.6조원)에 비해 13.7%(20.8조원) 증가한 172.4조원으로, 이러한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2009~2015년간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3.9%)의 3배를 상회하는 수준
- 국세수입의 성장세가 실물경제와 괴리된 일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향후 세수는 거시여건에 따라 크게 변동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국세수입 전망에 앞서 국세수입 증가 원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
 - 국세수입 증가세의 구조적인 요인과 제약요인을 검토하여 세수 전망에 반영

[그림 8] 1~8월 국세수입 실적(누계)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나. 1~8월 국세수입 실적

□ 2016년 국세수입은 1/4분기 중 전년말 거래·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시차, 환급 감소 등과 같은 일시적인 요인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자산시장 호조세 지속, 법인 실적 증가 등에 힘입어 8월까지 전년동기대비 20.8조원 (14%) 증가

- 2015년 말 부동산거래 증가, 2015년 법인들의 영업실적 개선, 부가가치세 환급 감소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13.8조원(27.5%) 증가
- 이후에도 자산시장 호조세 지속, 법인실적 개선 등에 따라 4~8월 중 국세는 전년 동기대비 6.7조원 증가
 - 부동산 거래량은 2015년 말 급등하였다가 2016년 1~2월 중 급감하였으나 3~8월 중 2015년 평균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부동산 가격지수도 상승 추세 지속
 - 2015년 법인 영업실적이 연결법인 및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분납(5~7월), 중간예납(8월)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법인세수의 호조 지속
 - 수입감소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는 수출 환급금 감소,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증가세
 - 취업자수 증가 등에 따른 소득세수 증가도 지속

□ 1~8월 중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151.6조원)에 비해 13.7%(20.8조원) 증가한 172.4조원으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

○ 전년동월대비 증감:

(누계, %): (1분기) 27.5 (4월) 23.1 (5월) 20.3 (6월) 17.8 (7월) 14.9 (8월) 13.7

(당월, 조원): (1분기) 13.8 (4월) 4.2 (5월) 0.7 (6월) 0.0 (7월) 1.1 (8월) 0.7

[표 18] 2015~2016년 1~8월 국세수입(순계)

(단위: 조원, %)

구분	2015			2016			증감			증감률		
	1분기	2분기	7-8월	1분기	2분기	7-8월	1분기	2분기	7-8월	1분기	2분기	7-8월
국세	50.2	56.6	45.0	64.0	61.5	46.8	13.8	4.9	1.8	27.5	8.6	4.1
○ 소득세	13.1	17.5	11.1	16.6	18.9	11.2	3.5	1.4	0.1	26.7	8.3	0.8
- 양도	2.4	3.0	2.4	3.4	3.2	2.5	1.0	0.2	0.0	41.7	5.3	1.4
- 근로	7.5	6.2	5.1	9.4	6.7	5.0	1.9	0.5	-0.1	25.3	8.2	-2.0
○ 법인세	12.7	9.8	10.1	15.8	12.6	11.3	3.1	2.9	1.2	24.4	29.2	12.1
○ 부가가치세	10.3	14.6	13.2	14.8	15.9	14.3	4.5	1.2	1.1	43.7	8.4	8.2
- 국내분	1.8	5.0	6.8	7.2	7.1	8.1	5.4	2.1	1.3	295.6	42.4	19.7
- 수입분	8.5	9.6	6.4	7.6	8.7	6.2	-0.9	-0.8	-0.2	-10.0	-8.7	-3.7
○ 교통세	3.2	3.6	2.4	3.8	3.9	2.6	0.6	0.3	0.2	18.8	8.0	9.2
○ 관세	1.8	2.3	1.6	2.2	2.1	1.3	0.4	-0.3	-0.3	21.6	-12.1	-16.6
○ 기타	9.1	8.6	6.6	10.9	8.3	6.1	1.8	-0.3	-0.5	19.5	-3.8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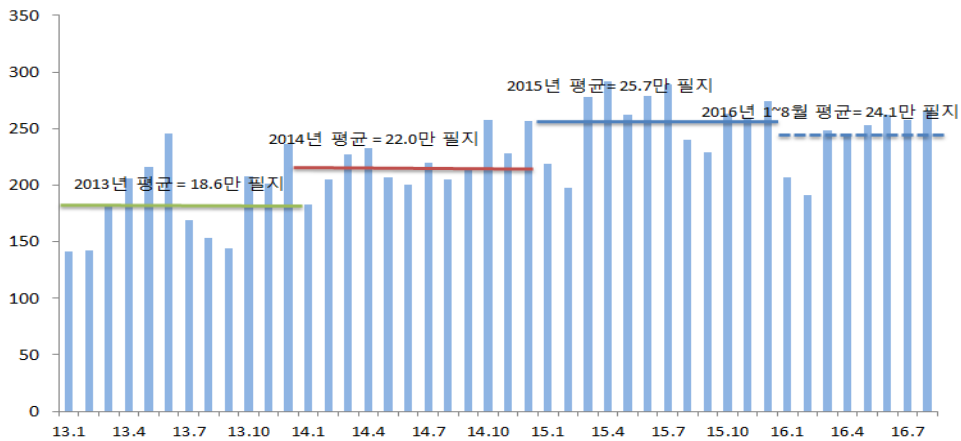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다. 세목별 세수 호조 원인

□ (양도소득세) 2015년 말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 2016년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하고, 대출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2015년 말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
 - 2015년 11~12월 토지·주택 등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8% 이상 증가하였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4개월 이내에 분납)함에 따라, 1~4월 양도소득세수는 4.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조원(41.9%) 높은 수준
- 2016년 1~2월 중 부동산거래는 전년동월대비 최대 -24% 수준(토지 기준)까지 급감하였으나, 3월 중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3~8월의 거래량이 작년 평균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이며, 부동산 가격지수도 상승 추세
 - 토지거래량(만 필지): (2015년) 25.7 (2016.1~2월) 19.9 (2016.3~8월) 25.5
 -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5~6월 중에는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7월 중 전년동기대비 0.1조원 증가

[그림 9] 토지거래동향



자료: 한국감정원

□ (법인세) 2015년 법인들의 매출액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원가 절감 등에 기인한 수익성 개선이 2016년 법인세 증가에 기여

- 법인영업이익은 2012~2014년 동안 -1.9~2.4%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5년 3.8%로 다소 회복
- 2015년 상장법인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3%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각각 14.2%, 3.1% 증가
 - － 약 2만개의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2015년 매출액은 감소폭이 확대(-0.3→-2.4%)되었으나, 영업이익률(4.3→5.2%) 및 세전이익률(3.9→5.3%)은 모두 전년보다 상승
- 국제유가가 2014년 6월말 이후 18개월만에 70% 이상 급락하는 등 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라 비금융법인의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수입(원유 등) 비중이 높은 기초소재업의 경우 수익성 증대 효과가 뚜렷이 나타남
 - － 외감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제조업(4.4→5.4%)이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비제조업(4.2→4.9%)도 전기가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
 - －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제조업(4.6→5.3%), 비제조업(2.9→5.3%) 모두 상승

[표 19] 2015년 외감기업의 업종별 당기순이익 증감 현황(전년 대비)

- 흑자증가 : 통신업(↑1,617.4%), 전기가스(↑644.2%), 의료정밀(↑273.3%), 철강금속(↑187.9%), 의약품(↑125.4%), 화학(↑67.0%), 음식료(↑29.9%), 섬유 의복(↑6.9%)
- 흑자감소 : 운수장비(↓43.6%), 유통(↓35.7%), 서비스(↓27.0%), 금속광물(↓25.7%), 전기전자(↓8.8%)
- 적자전환 : 운수장고
- 적자지속 : 건설, 기계, 종이

- (부가가치세·관세) 부가가치세·관세는 환급감소로 1/4분기 중 일시적으로 44%, 2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수입 부진 등에 따라 증가세 둔화되면서, 1~7월 중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각각 14%, 0.1%까지 하락
- 2015년 4/4분기에 경제상황 및 전체 세수규모를 고려해, 부가가치세 환급시기를 변경함에 따라 2016년 1/4분기 환급액이 전년동기대비 4.4조원 감소한 5.0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1/4분기에 환급조정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 증가 요인 존재¹⁰⁾¹¹⁾
 - － 분석 결과, 세수진도비(6월누적 세수/국세수입 예산)가 낮은 해에는 4/4분기의 환급비중이 과거 평균에 비해 낮으며, 반대로 세수진도비가 높은 해에는 4/4분기 환급비중이 과거에 비해 높아짐
 - 부가가치세는 지속적인 수입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수출감소로 인한 환급 감소, 민간소비 증가로 인한 국내분 부가가치세 증가가 다소 상쇄
 - － 국내분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가 2015년 2~3% 수준에서, 2016년 3~4%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수출감소율도 2015년 상반기 1.2%에서 3.9%로 확대됨에 따라 환급감소에 영향
 - 관세는 1/4분기 중 환급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5.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수입 부진이 계속되면서 1~7월 중 세수 증가율은 0%대로 둔화
 - － 통관수입(원화, 전년동기대비%): (15.4Q) -12.5 (16.1Q) -8.4 (16.2Q) -5.0

10)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2016.5), “세입여건과 조세행정의 관계” 참고

11) 환급액 자료가 없어, 2015년과 2016년 2~3월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차이로 추정한 금액임

- (근로소득세) 임금 및 임금근로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1월부터 꾸준히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누계기준) 15~25%의 증가율을 유지
 - 상용근로자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2015년 상반기 2.5~3.2%에 그쳤으나, 2016년 상반기 2.9~4.4%로 확대되면서, 근로소득세 증가에 기여
 - 임금총액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도 2.5~6.6% 범위에서 꾸준한 증가세 지속

[표 20] 근로소득세, 임금, 근로자수 추이

	15. 12월	1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근로소득세(누계, 조원)	—	3.9	8.2	9.4	11.7	14.0	16.1	19.1	21.1
(전년동월대비 누계, 조원)	—	(0.6)	(1.5)	(1.9)	(1.9)	(2.1)	(2.4)	(2.7)	(2.3)
상용근로자수(전년동월대비, %)	4.4	4.0	4.1	3.7	3.8	3.5	2.9	n.a.	n.a.
임금총액(전년동월대비, %)	6.6	6.4	6.0	3.4	3.6	2.9	2.5	n.a.	n.a.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라. 요약 및 결론

- 1~8월 중 국세수입은 일시적 특이요인 등으로 1/4분기 27.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2/4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자산시장 호조세 지속, 법인실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신장세
 - 8월까지 전년동기대비 20.8조원(14%) 증가함에 따라, NABO는 2016년 국세수입을 237.0조원으로, 예산(추경기준)을 4.3조원 상회할 것으로 전망
- 9월 이후 세수는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의 증가가 꾸준한 가운데, 9~10월에 예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2016년 세수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비 증가율 둔화 및 수입 감소 전망에 따른 부가가치세·관세 감소와 같은 하방위험도 존재
 - 중간예납으로 인한 세액 중 70~80%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2015년 법인실적 개선이 중간예납분 법인세수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민간소비는 상반기 2~3%에서 하반기 2%내외로 하락하고, 통관수입 역시 2~4분기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관세 감소 전망

- 소득세·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 및 대외부문의 회복세가 부진한 상태에서 자산시장 호조 등 일시적 요인이 최근의 세수실적 호조를 견인하고 있는 점은 향후 국세수입의 증가세를 제약할 것으로 전망
 - 향후 국세수입 증가율은 금리인상 가능성, 유가 및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법인 수익성 악화 가능성,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제약 등 중기적으로 하방위험 요인 확대

[표 21] 9~12월 주요 세목 세무일정

징수시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	근로 (원천징수)	신고분 (12월 결산법인)	신고	조기환급 영세율환급	일반환급
9월	—	○	중간예납 분납	—	○	—
10월	—	○	중간예납 분납 (중소기업)	예정신고1기 (7~9월분)	○	—
11월	중간예납 (1~6월분)	○	—	—	○	—
12월	—	○	—	—	○	—

2. 경기순환국면에 따른 부동산 시장과 국세탄력성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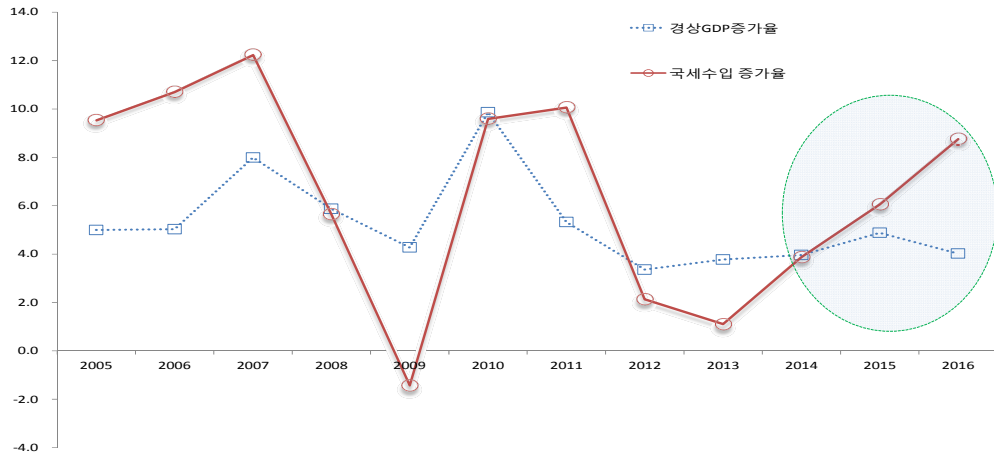
가. 문제의 제기

- 2015년 이후 경기회복세는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수증가율은 경상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신장세를 보임
 - 경상GDP증가율은 2012년 이후 4%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국세수입 증가율¹²⁾은 2014년 이후부터 경상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개선세
 - 특히 2016년에는 경상성장률(4.0%) 전망의 두 배를 상회하는 국세수입 증가율(8.8%)이 예상
- 2014년 이후 국세수입 증가율의 개선은 부동산 및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호조에 상당부분 기인
 -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자산관련 세수는 2014년 이후 반등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국세수입 증가율(6.0%)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31.1%)를 시현하였으며, 2016년에도 2015과 유사한 수준의 규모가 예상됨
- 이하에서는 경기순환국면에 따른 부동산 시장과 국세수입 탄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동반한 경기순환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경상GDP에 대한 국세수입의 탄성치를 비교하고, 부동산 시장이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

12) 국세수입 증가율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징수되었으나 국세수입 실적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월세수, 지방소비세, EITC 지급액을 감안하였다. 이월세수란 연도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납부가 다음해로 이월된 세수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연도의 정확한 세수실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월세수를 납부 시점이 아닌 발생 연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며, EITC 지급액(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세제)은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다. 지방소비세수와 EITC 지급액은 국세 총액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총 국세 징수실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금액을 포함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0] 경상GDP증가율과 국세수입 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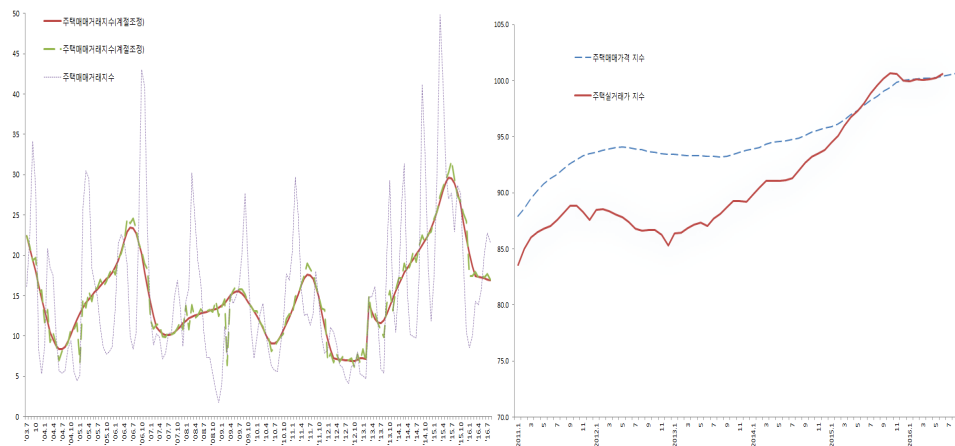
주: 1. 국세수입 증가율은 당해 연도에 징수되었으나 국세수입 실적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월세수, 지방소비세, EITC 지급액을 조정한 후 산출한 값임
2. 2016년은 NABO 전망치임

나. 부동산 시장 호조와 국세수입

□ 2014년 하반기 이후 자산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양호한 흐름을 지속

- 가계대출 완화,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으로 2014년 하반기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 및 증권시장이 침체국면을 탈피하여 호조세를 지속

[그림 11] 주택매매거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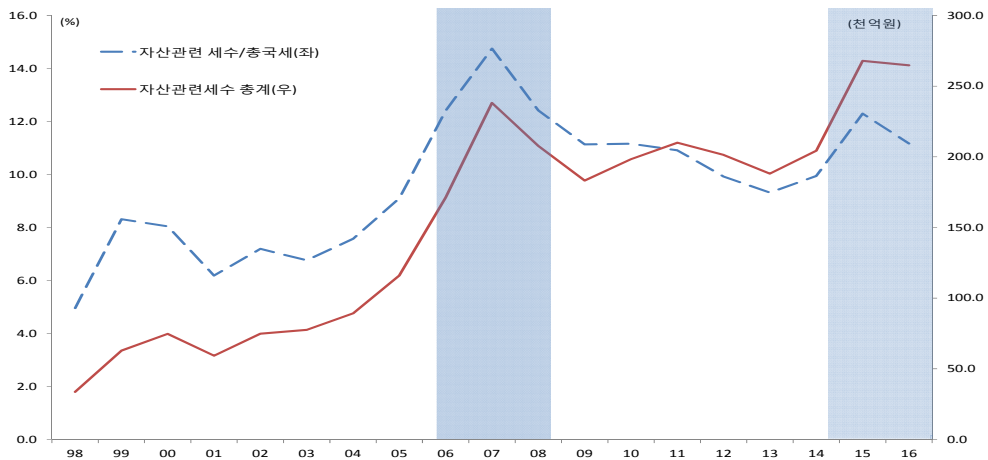


주: 주택매매가격 지수 100=2015년 12월임.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관련 세수의 증가가 2015년 이후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
 -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2015년 각각 47.3%, 49.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2016년 중에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
 - 자산관련 세수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2014년 9%대에서 2015년 12.3%로 상승
- 자산시장의 호조는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국세수입 증가를 가속화시키는 경향
 - 자산시장의 호조가 세수입의 탄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양도소득세 등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수뿐만 아니라 개인 및 기업의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득세 및 법인세 등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

[그림 12] 자산관련 세수 추이



다. 경기순환국면에 따른 부동산시장과 국세수입 탄성치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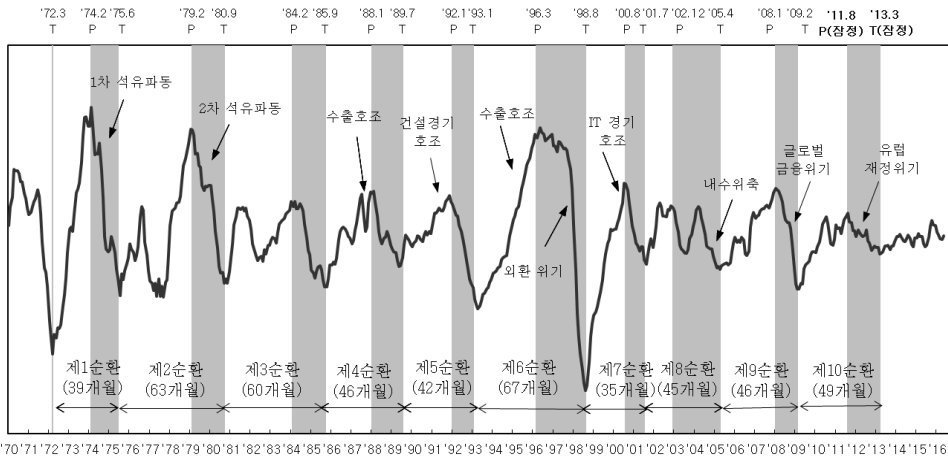
(1) 경기순환국면의 구분

- 경기순환은 경기저점을 기준으로 다음 경기저점까지의 순환을 의미
 - 확장국면은 경기저점에서 정점까지로 경기가 호전되는 상태를, 수축국면은 경기정점에서 저점까지로 경기가 위축되는 상태를 의미

□ 경기순환주기는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turning point) 및 경기순환국면을 기준으로 활용함

-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기순환주기에 따르면, 1970년 이후 11번째 경기순환기를 맞고 있음

[그림 13] 우리나라 기준순환일 및 경기순환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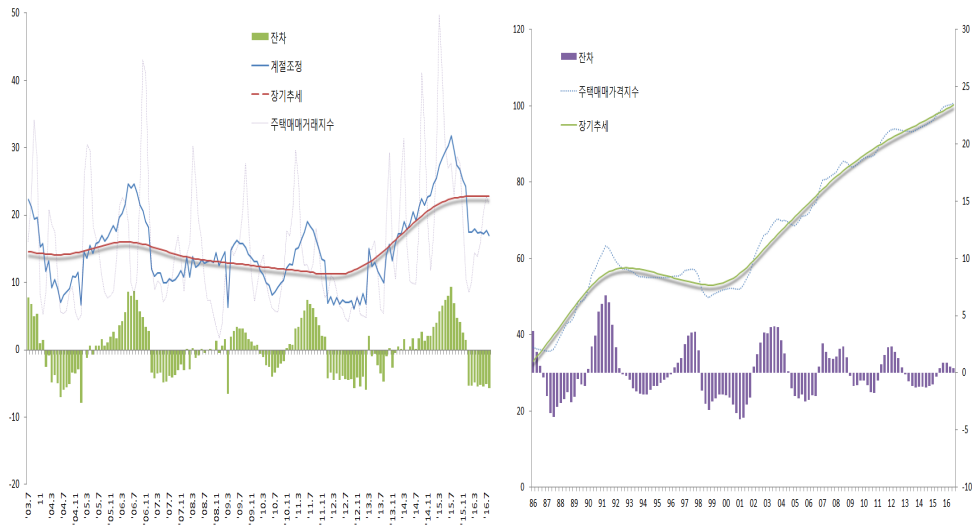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 부동산시장 경기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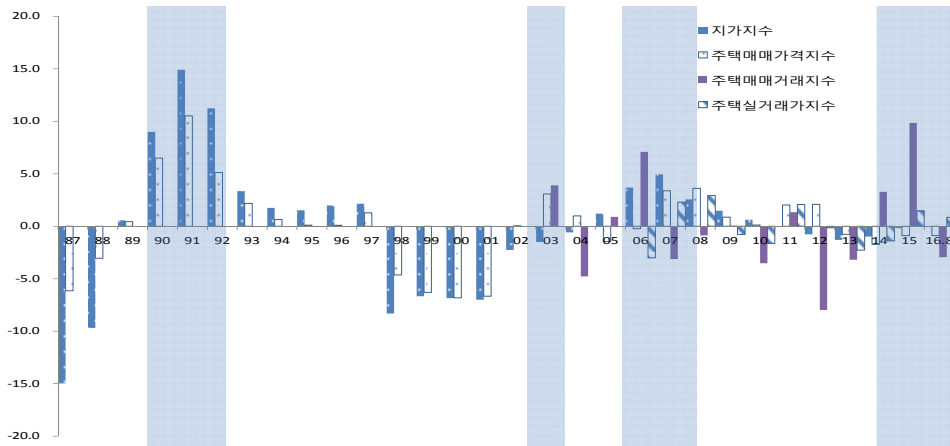
□ 본고에서 부동산 시장 붐 boom) 여부는 주요 부동산시장 변수들의 장기 추세를 추정하고, 장기추세로부터의 양(+)의 편차(deviation)로 정의

-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매매거래지수 등 개별 부동산 시장 변수들의 장기추세로부터의 편차(deviation)를 구하고,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대비 개별 편차의 비율이 1배를 초과하는 기간을 부동산 경기 붐이 있었던 연도로 설정
- 개별 지표들의 배율 값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90~92년, 02~03년, 06~08년 초반, 14~15년이 부동산 경기 붐이 있었던 시기로 선정됨

[그림 14] 부동산 시장지표의 장기추세



[그림 15] 부동산 시장지표들의 장기추세로부터의 편차(deviation)



주: 음영부분은 부동산 경기호조가 있었던 기간을 표시함

□ 마지막으로 경기확장기를 자산시장 호황을 동반하였던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으로 구분

- 부동산 시장 붐(boom)을 동반한 경기확장국면은 제5순환기(89.7~92.1), 제8순환기(01.7~02.12), 제9순환기(05.8~08.1), 제11순환기(13.3~)로 설정함

[표 22] 경기순환 국면과 부동산 시장 붐(boom)

	경기 확장기		부동산 시장 boom 유무
	저 점	정 점	
제4순환기	1985. 9	1988. 1	
제5순환기	1989. 7	1992. 1	○
제6순환기	1993. 1	1996. 3	
제7순환기	1998. 8	2000. 8	
제8순환기	2001. 7	2002.12	○
제9순환기	2005. 4	2008. 1	○
제10순환기	2009. 2	2011. 8	
제11순환기	2013. 3	—	○

(3) 부동산시장과 국세수입 탄력성

- 자산시장 붐을 동반한 경기확장기의 국세수입 탄성치는 자산시장 붐을 동반하지 않았던 경기확장기의 탄성치의 1.5배에 달함
- 자산시장 호황을 동반한 경기확장기의 경상GDP증가율에 대한 국세수입 탄성치는 평균 1.4로 추정되었으며, 자산시장 호황을 동반하지 않았던 경기확장기의 국세수입 탄성치는 0.9로 추정됨
 - 따라서 자산시장 호황을 동반한 경기확장기에 성장에 대한 국세수입의 증가율이 훨씬 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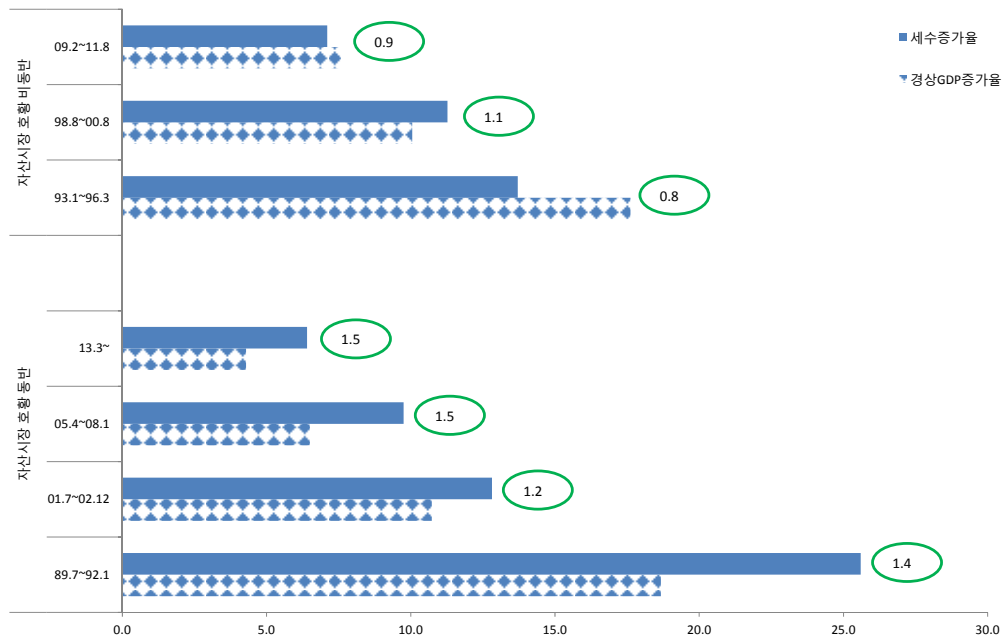
[표 23] 국세수입 탄성치 비교(경기확장 국면)

(단위: %)

해당 기간에 자산시장 호황이 있었는지 여부	경기순환기	확장기 (저점~정점)	경상GDP 증가율	국세수입 증가율	국세수입 탄성치
자산시장 호황이 있었던 경우	제5순환기	89.7~92.1	18.7	25.6	1.4
	제8순환기	01.7~02.12	10.7	12.8	1.2
	제9순환기	05.4~08.1	6.5	9.7	1.5
	제11순환기	13.3~	4.3	6.4	1.5
	단순 평균		10.0	13.6	1.4
자산시장 호황이 없었던 경우	제6순환기	93.1~96.3	17.6	13.7	0.8
	제7순환기	98.8~00.8	10.0	11.3	1.1
	제10순환기	09.2~11.8	7.6	7.1	0.9
	단순 평균		11.7	10.7	0.9

- 주: 1. 경기순환기 구분은 통계청 경기순환기를 기준으로 설정함
 2. 경상GDP증가율과 국세수입 증가율은 해당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임
 3. 국세수입 증가율 산출기간은 정세시차(6개월~1년)를 반영하여 조정한 결과임
 4. 국세수입에는 분석대상 기간 중에 신설되었거나 일정기간 유지되다가 폐지됨으로써 증가율에 일시적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세목(방위세, 전화세, 전매익금, 교통세, 농특세)을 제외

[그림 16] 경기확장기의 국세탄성치 비교



주 : ○ 안은 국세수입탄성치를 의미

- 반면 경기수축기의 국세탄성치를 분석한 결과, 자산시장을 동반한 경기 확장기에서 수축국면으로 전환될 때 국세수입의 탄성치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크게 하락
- 해당 경기수축기 직전의 경기확장기에 자산시장의 호황이 있었던 경우 국세 수입 탄성치 평균은 0.5로, 여타 경기수축기의 1.2에 비해 낮음
 - 따라서 자산시장을 동반한 경기확장기의 높은 국세수입 증가율은 수축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더 가파르게 하락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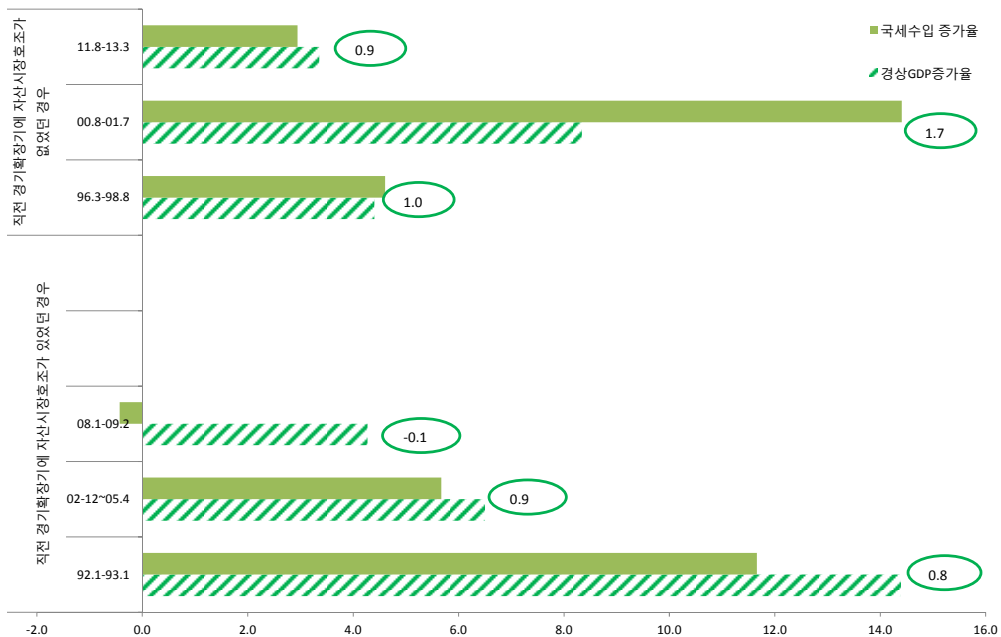
[표 24] 국세수입 탄성치 비교(경기수축 국면)

(단위: %)

해당기간 직전의 경기 확장기에 자산시장 호황이 있었는지 여부	경기순환기	수축기 (정점~저점)	경상GDP 증가율	국세수입 증가율	국세 탄성치
자산시장 호황이 있었던 경우	제5순환기	92.1~93.1	14.4	11.7	0.8
	제8순환기	02.12~05.4	6.5	5.7	0.9
	제9순환기	08.1~09.2	4.3	-0.4	-0.1
	단순평균		8.4	5.6	0.5
자산시장 호황이 없었던 경우	제6순환기	96.3~98.8	4.4	4.6	1.0
	제7순환기	00.8~01.7	8.3	14.4	1.7
	제10순환기	11.8~13.3	3.4	2.9	0.9
	단순평균		5.4	7.3	1.2

- 주: 1. 경기순환기 구분은 통계청 경기순환기를 기준으로 설정함
 2. 경상GDP증가율과 국세수입 증가율은 해당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임
 3. 국세수입 증가율 산출기간은 징세시차(6개월~1년)를 반영하여 조정된 결과임
 4. 국세수입에는 분석대상 기간 중에 신설되었거나 일정기간 유지되다가 폐지됨으로써 증가율에 일시적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세목(방위세, 전화세, 전매익금, 교통세, 농특세)을 제외

[그림 17] 경기수축의 국세탄성치 비교



주: ○ 안은 국세수입탄성치를 의미

<세수탄력성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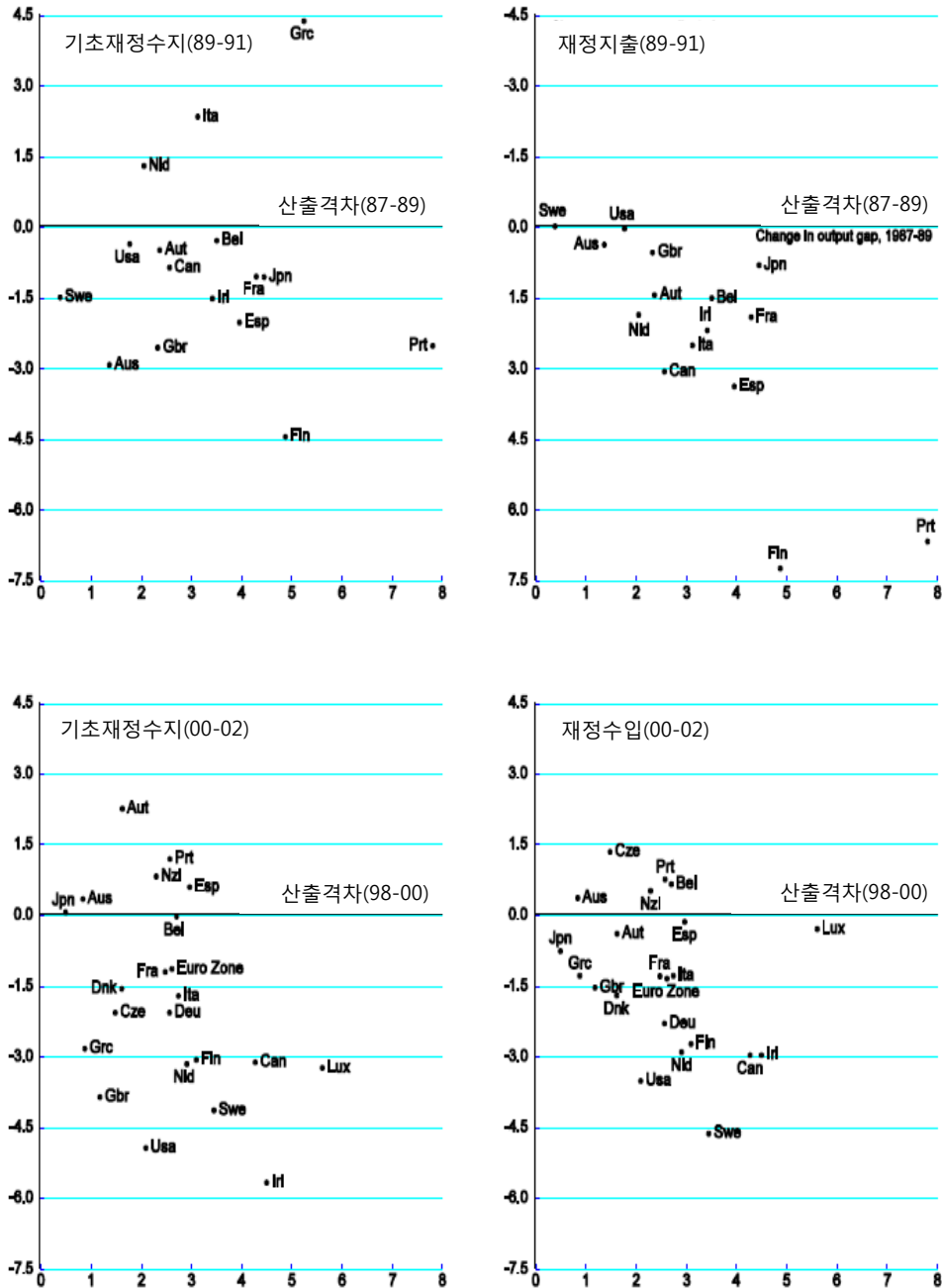
- 세수탄력성(Elasticity of tax revenue)은 GDP가 1% 증가할 때 세수가 몇 %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 $\eta = (\Delta T/T)/(\Delta Y/Y)$; 세수증가율/경제성장률
 - $= (\Delta T/\Delta Y)/(T/Y)$; 한계세율/평균세율(조세부담률)
 - GDP 증가에 따라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높아질수록 세수탄력성이 증가
- 세수탄력성과 조세부양성과의 관계
 - 엄밀한 의미의 세수탄력성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증가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세구조의 변화, 인플레이션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조세부양성(buoyancy)과는 다른 개념
 -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세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세수변동효과를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조세부양성이 포함된 숫자를 활용하여 세수탄력성을 산출

라. 부동산시장과 재정운용

- Isabelle Joumard & Christophe Andre(2008)¹³⁾은 부동산 시장 호황 등 일시적 재정수입 증가 이후에 감세 또는 재정지출 증가 등 확대 재정정책이 취해짐에 따라 구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을 지적한 바 있음
 -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980년대 후반 단기간 재정수입 증가 이후 구조적 재정지출이 증가하였고, 1990년대 후반 단기간 재정수입 증가는 이후 감세기조로의 전환 계기가 되었음
- 동 보고서는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이례적 재정수입의 증가가 구조적 확대 재정정책으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재정상황에 대한 판단 착오와 정치적 고려 등을 지적
 - 부동산 시장은 경기 진폭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경기상승기의 재정수지의 개선을 일시적 요인에 의해서인지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인지 구분하기 어려움
 - 또한 자산시장의 호조는 조세부담률의 급등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재정지출의 확대나 감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에 직면

13) 「revenue buoyancy and its fiscal implications」, OECD W/P,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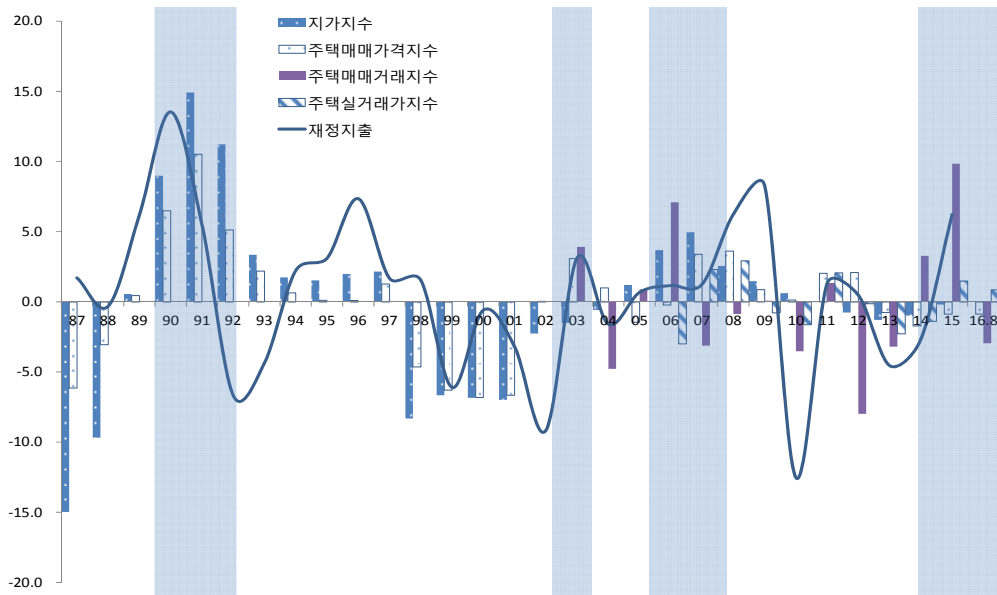
[그림 18] 일시적 재정수입 호조 이후의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변화(OECD 사례)
(단위: 잠재GDP 대비 %)



자료: 「revenue buoyancy and its fiscal implications」, OECD W/P No.598, 2008, pp9.

- 우리나라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시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은 재정운용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부동산시장 사이클과 재정지출 사이클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그림 19])
 - － 여기서 부동산시장 사이클과 재정지출의 사이클은 각 변수들의 장기추세를 구하고, 장기추세로부터의 편차(deviation)로 설정함
 - 이는 부동산 시장의 호황에 따른 이례적인 재정수입의 증가가 재정지출의 증가로 이어짐을 의미

[그림 19] 부동산 사이클(cycle)과 재정지출 사이클 간의 관계(한국 사례)



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자산시장의 경기변동은 국세수입 증가율의 변동폭을 증폭시킴
 - 자산시장 붐을 동반한 경기확장기의 경상GDP증가율에 대한 국세수입 탄성치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
 - 반면 자산시장 붐을 동반한 경기확장국면이 수축국면으로 전환될 때 국세수입의 탄성치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크게 하락

- 최근의 세수실적 개선은 경기적 요인보다는 자산시장 호조 등 일시적 요인으로 추세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 2015년 이후 세수실적 개선은 수출·투자·민간소비 등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미약한 가운데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가격 상승이 견인
 - 금리인상 본격화 등으로 자산시장 호조세가 약화될 경우 세수여건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 상존
- 자산시장 반등 등에 의한 일시적인 세수증가를 구조적인 세수여건 호조로 오인하고 재정운용을 할 경우 구조적인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질 우려
 - OECD¹⁴⁾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산가격 변동에 감안하여 조정한 재정수지(Adjusting fiscal balance for asset price cycle)를 개발하여 발표하였으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자산가격 변동 조정 재정수지(adjusting fiscal balance for asset price cycle)> —

- 재정수입은 자산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
 - 자산가격 호조는 국세수입을 추세보다 더 높게 증가시키며, 반대로 자산시장 침체는 국세수입을 추세보다 더 크게 하락시킴
- 따라서 현행의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fiscal balance)* 자체만으로는 현재의 재정정책기조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움
 - 많은 국가에서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일시적 재정수입 증가를 구조적 재정수입 증가로 오인하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함에 따라 재정수지가 구조적으로 악화
 - * 재정수지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변동분을 제거한 재정수지로서 재정정책기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
- OECD는 자산가격 변동 조정 재정수지(adjusting fiscal balance for asset price cycle)를 개발(2011년)하여 재정정책의 기조나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
 - 자산가격 변동 조정 재정수지(adjusting fiscal balance for asset price cycle)란 구조적 재정수지에서 자산가격(부동산 및 주식)의 급변동에 따른 재정수입을 제거한 재정수지를 의미

14) 「adjusting fiscal balances for asset price cycles」, OECD W/P No. 868,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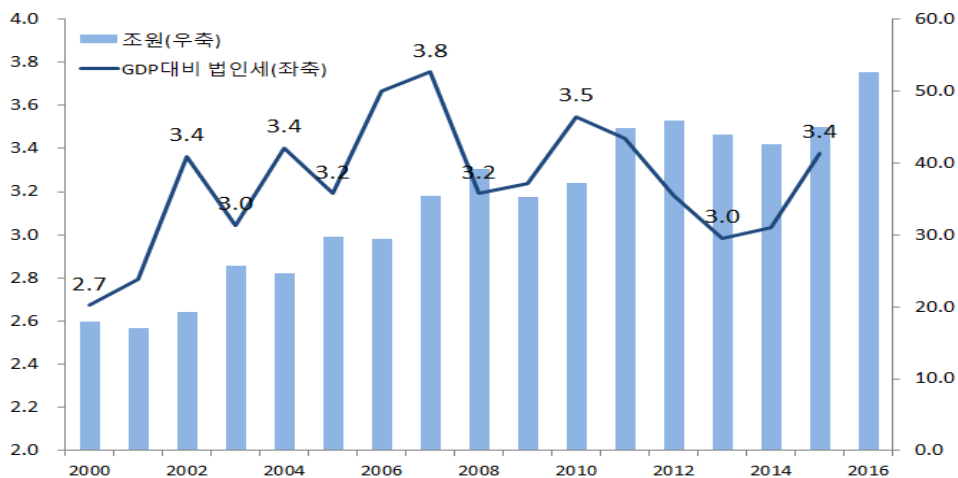
3. 최근 법인세 추이와 변동 원인

가. 논의 배경

- 법인세는 2012~2014년 중 2%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거나,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2015년에는 전년대비 5.6%의 증가율을 보였고, 2016년에도 전년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DP대비 3.8%에서 3.2%까지 하락하였으나, 법인실적 개선에 따라 2011년 3.5%까지 증가, 이후 세율인하, 경기부진 등에 따라 다시 감소
 - 2015년에는 예산(추경기준) 대비 2.2% 초과징수되었고, 2016년에도 2.5% 초과 전망

- 이러한 법인세 부담의 변화는 기업실적의 변화와 세율 및 비과세·감면 등의 제도 변화에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근 법인세 부담 증가 요인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분석해보고자 함
 - 최근 법인 실적 증가와 비과세·감면 정비에 의한 세부담 변화를 추정해 봄으로써, 세수 전망 시 세법개정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 부분을 반영하는데 기여

[그림 20] 법인세 추이



주: 1. GDP는 t기, 법인세는 t+1기의 수치를 사용하여 계산한 것임; 2016년은 NABO의 전망치

[표 25] 법인세 예결산 및 오차 추이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예산(조원)	18.9	16.1	24.2	23.6	29.7	26.9	30.5	36.3	32.2	36.9	41.3	44.5	46.0	46.0	44.1	51.4
결산(조원)	17.0	19.2	25.6	24.7	29.8	29.4	35.4	39.2	35.3	37.3	44.9	45.9	43.9	42.7	45.0	52.6
(증가율,%)	-5.1	13.4	33.2	-3.7	20.8	-1.5	20.6	10.6	-10.0	5.7	20.4	2.4	-4.5	-2.7	5.6	16.9
오차(조원)	-1.9	3.1	1.4	1.1	0.1	2.5	4.9	2.9	3.0	0.4	3.6	1.4	-2.1	-3.4	1.0	1.3

주: 추경이 편성된 경우, 예산은 추경기준 예산을 의미

나. 법인세 부담 변화의 원인 분석

□ 법인세 변화의 원인은 크게 (1) 기업실적의 변화, (2) 세율 및 비과세·감면 등의 제도 변화로 나눌 수 있음

- 기업실적은 GDP 중 차지하는 법인영업잉여로 측정
- 세율 및 비과세·감면 등 제도변화로 인한 세부담은 영업잉여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

□ 영업잉여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도변화로 인한 세부담 변화를 측정하는 대용치(proxy)이기는 하나, 이를 다시 (1) 통계 편제 상 기업의 소득에 가까운 부분과, (2) 제도 변화에 기인한 부분인 실효세율로 나눌 수 있음¹⁵⁾

- 통계 편제 상 기업의 소득에 가까운 부분은 ‘과세표준/영업잉여’로 측정 가능하며, 국민계정상 영업잉여와 세금통계상 과세표준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 국민계정상 법인부문의 영업잉여에서 적자법인의 영업잉여, 순지급이자, 토지순지급임료 등을 제외하고, 해외소득을 포함한 후,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면 ‘흑자법인의 사업연도소득(국세통계)’이 산출됨¹⁶⁾.
 - － ‘흑자법인의 사업연도소득’ 중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을

15) 이러한 분해는 Ueda, Junji and Ishikawa, Daisuke and Tsutsui, Tadashi, Cyclical and Structural Components of Corporate Tax Revenues in Japan (March 25, 2010)의 방법을 기초로 한 것임.

16) 세무조정 부분에 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 약 10~30% 내외로 추정되며, 적자기업들의 영업잉여 및 해외소득에 대한 부분이 나머지 70~90% 부분을 차지함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되는데, 흑자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중 제도적 요인인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는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

- 제도 변화에 기인한 부분인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법인세로 측정¹⁷⁾
 - 세법에 의한 법정세율과 각종 공제·감면 제도로 인한 세부담 간 차이가 발생
 -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을 보기 위해 명목세율 및 최저한세율 등 법인 세제의 적용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대비 비율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

[표 26] 법인세 부담 변화 원인 분석의 개요

$$\begin{aligned} \text{법인세/GDP} &= (\text{영업잉여/GDP}) \times (\text{법인세/영업잉여}) \\ &= (\text{영업잉여/GDP}) \times (\text{과세표준/영업잉여}) \times (\text{법인세/과세표준}) \end{aligned}$$

[표 27] 법인의 영업잉여와 과세표준 사이의 관계

〈명목GDP의 구성: 분배 측면〉		〈법인세 과세표준〉	
피용자보수	임금 및 급여	(1) 법인 영업잉여(SNA 베이스)	
	고용주 사회부담금	- 적자기업 음의 영업잉여 - 순지급이자, 토지순지급임료 등 + 해외소득 +/- 세무조정 등	
영업잉여	개인 영업잉여 또는 혼합소득	(2) 흑자법인의 사업연도소득(국세통계)	
	법인 영업잉여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등	
고정자본 소모		(3) 과세표준	
순생산 및 수입세			

17) 엄밀히 말하면 실효세율의 변화는 과표의 변화와 법인세의 변화의 상대적 크기이기 때문에, 세법개정효과를 엄밀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항목별로 추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본 절의 후반부에서 이에 대해 분석

- 2010~2012년 중 법인세 부담(GDP대비 법인세 및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였는데, 이는 법인실적 악화, 실효세율 하락 요인이 모두 작용
 - 2011년 법인실적(GDP대비 법인영업잉여, 다음 표의 D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율인하의 영향으로 법인세부담(다음 표의 E행)이 하락하였고, 2012년에는 법인의 영업실적의 하락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추정됨

- 2013~2014년 중 법인세 부담 변화 원인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법인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변화보다는 법인실적 악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볼 수 있음
 - 2013년에 실효세율이 소폭 상승(E행, 전년대비 0.1%p)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실적의 하락(D행, 전년대비 -5.2%p)과 함께 법인세 부담(A열 및 C열)이 하락
 - 2014년에 실효세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업실적 상승(D행, 전년대비 8.4%p)과 함께 법인세 부담도 증가(GDP대비 법인세: 2013년 2.98%→2014년 3.03%, 영업잉여대비 법인세: 2013년 16.4%→2017년 17.0%)
 - 2014년 ‘영업잉여/GDP’ 비중은 하락하였으나, ‘과세표준/영업잉여’ 비율은 상승함. 이는, 기업의 전반적인 영업잉여 증가율 자체는 둔화되었으나, 과세표준이 증가할만한 요인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해석됨
 - 특히, 세무조정 비율¹⁸⁾이 2013년 33.7%에서 2014년 29.0%로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과세표준/영업잉여’ 비중이 증가한 것은 제도적인 요인보다는 경제적인 요인(적자기업의 영업잉여 감소, 순지급이자 감소, 해외소득의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분석됨

18) 세무조정비율은 ‘(의금산입-손금산입+기부금한도초과-기부금한도초과이월)/흑자법인 사업연도소득’으로 계산하였으며, ‘(흑자법인 사업연도소득 - 당기순이익)/흑자법인 사업연도소득’ 지표로 계산하더라도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표 28] 법인세 부담 변화 원인 분석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IT/GDP	$A=B \times C$	3.8	3.2	3.2	3.5	3.4	3.2	3.0	3.0	3.4	3.3
OS/GDP	B	17.8	16.9	17.3	19.8	19.5	18.5	18.2	17.8	17.6	—
CIT/OS	$C=D \times E$	21.1	18.9	18.8	17.9	17.7	17.2	16.4	17.0	19.2	—
base/OS	D	97.9	95.2	89.9	91.2	92.5	90.3	85.1	93.5	—	—
CIT/base	E	21.6	19.8	20.9	19.7	19.1	19.1	19.2	18.2	—	—
세무조정 비율		19.4	29.9	11.4	14.7	24.3	20.4	33.7	29.0	—	—

주: 1. 2016년 법인세/GDP비중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사용한 추정치임

2. GDP, OS(영업잉여), base(과세표준)는 t기, CIT(법인세)는 t+1기의 수치를 사용하여 계산

- 법인세부담(GDP대비 법인세)은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역시 법인의 영업실적 증가 및 비과세·감면 정비 요인이 모두 작용
 - 법인의 영업잉여증가율은 2011년 3.7%를 기록한 이후 2012~2014년 중 -1.9~2.4%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3.8%로 증가
 - 2015~2016년에는 최저한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정비 등 요인이 존재
 - 다만, 이에 대한 거시 및 국세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다음 소절에서 자세히 분석

(1) 기업실적의 변화

- 2010년 이후 기업의 매출액과 이익이 2013년까지 꾸준히 둔화되거나 감소하였으나, 2014년부터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익지표들이 개선되기 시작
 - 2014년에는 매출액 감소와 영업이익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영업외수익률이 개선됨에 따라 순이익률이 증가하였고, 특히 금융업종에서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짐(2014년 금융업 당기순이익 증가율: 47%)
- 2015~2016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은 2011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였고, 2016년 상반기 상장법인의 매출액 증가율은 증가세로 전환

- 2015년에는 상장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영업·영업외·세전·순이익률이 모두 개선되었으며, 특히 원자재·유가 하락 관련 업종의 이익률 개선이 뚜렷
 - － 영업이익률(%): ('11) 6.2 ('12) 5.4 ('13) 5.7 ('14) 5.3 ('15) 6.2 ('16상) 7.8
 - － 순이익률(%): ('11) 4.2 ('12) 3.6 ('13) 3.6 ('14) 3.7 ('15) 3.9 ('16상) 5.9
- 2016년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종(전자, 정유, 석유화학, 항공, 통신)의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종(해운, 건설, 유통, 조선, 철강, 자동차)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전환될 것으로 전망
 - － 이에 따라 2016년 전체 법인실적 및 2017년 법인세 증가가 예상됨

[표 29] 기업 경영 실적

(단위: 전년동기대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대상 법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	2015	2016 상반기
매출액증가율	14.3	12.0	5.0	1.8	1.7	-7.2	-3.0	0.6
영업이익률	5.3	4.5	4.1	4.1	4.0	5.3	6.2	7.8
영업외수익률	-0.4	-0.8	-0.7	-1.3	-0.6	0.4	0.6	0.1
세전이익률	4.9	3.7	3.4	2.9	3.3	4.9	5.6	7.8
순이익률	3.8	2.7	2.5	2.0	2.5	3.7	3.9	5.9

자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표 30] 11대 산업 2015년 상반기 실적

업종	주요 포함 기업	2016년상반기(조원)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매출	영업이익	매출	영업이익
11대산업계		400.2	32.0	-1.3	11.5
전자	삼성전자, LG전자 등	141.5	16.2	1.0	-1.9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74.1	4.5	10.0	0.2
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25.4	0.6	-10.1	흑자전환
철강	포스코, 현대제철, 동부제철	34.4	2.1	-12.3	-3.6
정유	SK이노베이션, S-oil	27.4	3.1	-20.8	43.8
석유화학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22.7	2.8	3.4	40.6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8.4	0.5	0.3	169.6
해운	현대상선, 한진해운	5.3	-0.8	-27.2	적자전환
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19.9	0.7	8.6	2.7
통신	KT, SK텔레콤	19.7	1.6	1.9	8.3
유통	롯데쇼핑, 이마트	21.5	0.6	3.4	-16.4

자료: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2) 비과세·감면의 정비

□ 법인세 대비 조세지출 비율은 2011년 20.5%에서 2013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 14.2%까지 하락

- 조세지출의 감소는 법인세부담이 하락할 경우, 세제감면 효과도 작아지기 때문에 제도의 영향 외에 경기 악화 및 법인실적 하락의 영향도 받음

[표 31] 법인세 비과세 감면 정비 및 법인세

(단위: %)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법인세조세지출/법인세	23.0	20.7	17.5	17.9	20.3	18.9	20.5	18.4	18.7	16.6	14.2
법인세 조세지출 증/감	20.1	-11.1	1.8	13.2	2.0	-1.7	30.6	-7.8	-3.1	-13.6	-10.0
법인세 증가율	20.8	-1.5	20.6	10.6	-10.0	5.7	20.4	2.4	-4.5	-2.7	5.6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및 각 연도 결산개요

□ 2013년 이후 최저한세율의 두 차례 인상, 각종 공제율 축소, 양도소득 및 미환류소득 등에 대한 추가과세와 같은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 결과, 2015~2016년에 연간 약 1조원 이상의 법인세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

- 2017년부터는 2015년 세법개정(영업용승용차 과세, 이월결산금 공제한도 설정 등)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약 4천억원의 세수 증가 전망

[표 32]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제 주요 변경 내용

소득 귀속연도	법인세율	주요 변경 내용(법인세율 변경 외)	연간 세수변화 (조원)
2009	11/22	최저한세율 인하(8/13/15→8/11/14%) 중소기업 R&D 지출 세액공제인상(15%→25%)	△0.1 △0.6
2010	10/22	최저한세율 인하(7/10/11/14%), 연결납세제도 도입	△0.1 △0.2
2011	10/22	컴퓨터 등 즉시상각 허용	△0.04
2012	10/20/22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신설	△0.04
2013	10/20/22	최저한세율 인상(7/10/12/1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	+0.2 +0.2
2014	10/20/22	최저한세율 인상(7/10/12/17%)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등	+0.2 +0.2
2015	10/20/2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중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0.1 +0.1
2016	10/20/22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0.3

다. 요약 및 소결

- 법인세 부담 변화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세율 인하가 있었던 2012년 이후에는 법인실적 증감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으며 법인세 부담이 변화해 옴
 - 2013년 실효세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인 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였고, 2014년 실효세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법인 실적 상승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증가
 - 2015년부터의 법인세수 증가는 상장 법인의 이익률이 2015년 이후 개선세가 확대된데다, 최저한세율 인상 등 2013년 세법개정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데에도 일부 기인

- 최근 최저한세율 인상,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각종 공제·감면 폐지 및 축소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상승했으며, 이는 법인세수에 구조적인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과표 대비 법인세로 측정한 실효세율은 2015년부터 상승했으나, 법인세율 인하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추정됨
 - 2013~2015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법인세수 증가 규모는 2015~2017년 동안 연간 약 0.4~1.0조원으로 추정됨
 - － 2013~2014년 세법 개정(최저한세율 인상,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의 세수 증가 약 1.0조원, 2015년 세법개정(영업용승용차 과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설정 등)의 세수증가 약 4천억원으로 추정
 - － 2015~2017년 전체 법인세수 증가(전년대비 1.6~7.6조원 증가) 중, 제도 변경 이외의 요인에 의한 법인세수 증가는 법인실적 개선, 세부담 평탄화를 위한 세무조정(tax smoothing) 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

발간일 2016년 10월 13일
발행인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실 세수추계1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성지문화사 (tel 02·2273·5090)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1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88·4744)

ISBN 978-89-6073-949-9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6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